朝鮮日報
夕刊
三十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月一回發行)

城內殘敵을掃蕩코 霍山城完全占領

敗走敵을繼續猛砲擊

【霍山三十日同盟特派員發至急報】二十九日 午後十一時 添田部隊는 東北兩門으로부터 霍山縣城에 突入, 城內의 殘敵을 掃蕩하고 三十日未明 完全히 全城을 占領, 各城門及各機關에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我將兵의 絶叫하는 感激에 넘치는 萬歲소리는 새벽의 大別山을 震撼시켯다

【霍山二十九日發同盟】霍山城外에 肉薄한 我橫尾砲兵部隊는 二十九日朝來 城外의 敵을 制壓하며 渡河敗走하는 敵에 猛烈한 砲擊을加하는 中으로 敵의死傷은 헤아릴수업스며 敗殘部隊는 大混亂을 부하고잇다 敵은 北支戰線에서 驅逐된 馮治安의 第三十七師及四川共產軍과 保安隊一個團으로 兵力은 約五千餘인데 馮治安軍은 北支에서 連戰連敗를 繼續한까닭에 最近國民으로부터 몹시 虐待를 밧고잇는關係上 霍山을 敗退하면 갈곳이업는 狀態로 全軍은 自暴自棄가되어 抵抗을 繼續하는中이다

【霍山에서三十日同盟特派員發】我添田部隊가 占領한 霍山縣城은 重疊된 大別山脈의 峻嶺에 둘러싸혀잇고 城背後에는 淠河의 濁流가 흐르는 自然의 要害로서 이로부터 大別山脈을 너머 英山을 經由, 漢口에 이르는 軍用道路가잇다 古來漢口防備의 前線據點이라고하야 支那堅城의 一로 세이든곳이다 淸朝末期 長髮賊頭目 洪秀全이 漢口에 依據叛亂을 이르킨을때 曾國藩은 먼저 霍山을 무질러 峻嶮을 넘어 漢口에 進攻, 同地를 平定하엿다 蔣介石도 我軍의 進攻을 豫期하고 周圍의 山岳에 無數한 토치카掩蔽壕를 構築하야 防備를 굿게하고 馮治安의 直三十七, 三十七兩師及 四川共產軍, 霍西保安隊等을 配置하야 死守를 嚴命하엿스나 我勇猛果敢한 攻擊으로써 堅陣도 드듸여 陷落, 어리하야 漢口防衛의 大別山脈다언의 一角은 餘地업시 崩潰된것이다

【霍山에서三十日同盟特派員發】二十八日午後六時 霍山縣城一里線에達한 添田部隊는 前面에 嶮立한 急峻絶壁의 丘陵高地의 旣設陣地에 依하야 頑强히 抵抗하는 敵에 對하야 橫尾砲兵部隊의 有力한 協力下에 力行又力行 二十九日午前一時半 드듸여 同山地를 奪取, 山地內에서 抵抗하는 敵을 殲滅하면서 北東兩方面으로부터 城壁에 肉薄하야 午後八時半攻擊開始以來 激戰二十六時間餘에 드듸여 北門市街의 一角을 占領, 繼續同十一時東北兩門으로부터 日章旗를 先頭에 세우고 城內에 突入, 殘敵掃蕩을 行하야 今曉完全히 占領한터로 그間激戰 實로 三十時間餘에 이르럿다 그리고 東門에 이르는 沿道의 敵遺棄死體만도 累累五百以上에 達하엿다

〇〇部隊長霍山城入城

【霍山에서三十日同盟特派員發】〇〇部隊長은 三十日午前十時感動의 添田部隊의 勇士가 堵列한가운데를 東門으로부터 威風堂堂히 霍山縣城에 入城, 縣政府前庭에서 祝杯를 노피들고 天皇陛下萬歲를 奉唱하엿다 霍山을 占領한 添田部隊는 主力으로써 敗走하는 敵을 急追交戰하며 西進을 繼續하고잇다 그리고 橫屋部隊는 霍山南方을 迂回하야 淠河를 渡河英山街道로 敗走하고잇는 敵密集部隊背後에 砲擊을 퍼붓고잇다

潢河西南地區에

蜿蜒二百里防衛陣强化

【〇〇二十九日發同盟】六安을陷落한後 (金寨)를 사이도업시 西方으로進擊하고잇는 我部隊 前面의 敵은 맥업시도 動搖되여 繼續後退中인바 이와同時에 後方陣地는 益益强化되고잇다 卽我空中偵察에 依하면 固始, 葉家集(六安西方百五十里)을 據點으로 潢河의 西南地區에는 蜿蜒二百里에 亘한 敵의 防衛陣地가 構築되여잇스며 特히 葉家集으로부터 葉家集一帶에는 數線의 堅固한 陣地가 構築되여잇다 다시 西南方大別山系의 北麓, 沙窩(光州 西南方百里)과 그西南方新店을連結하는 第一線一帶에는 堅固한 數線의 陣地가 構築되여잇다 樹木업는山中에 露出되여잇는 陣地는 分明히 徐州陷落後卽時 構築에着手한 半永久的陣地인 外觀을 呈하고잇는데 潢河 潢河의 北方으로부터의 我進擊을앞두고 戰戰兢兢하고잇는것을 如實히 말하고잇다

廬山西南側 孔村을占領

【湖漢城에서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朱家山, 牛頭山南方 中岩의 敵主陣地를 攻擊中의 梅田部隊는 中岩東側으로부터 黃龍庵, 砂子灘을 짜르고저 二十九日午後八時부터 猛然히 이에 攻擊을 加하고잇다 그리고 廬山의 西南側戰線孔家祠으로부터 尖山을 攻擊中인 飯野部隊는 二十九日午後二時 孔家祠南方의 孔村을 占領하엿다 이 戰鬪에서 西村少佐는 陣刀를 휘두르며 激戰中에 右胸部에 貫通銃創을 바덧다

취코問題

英, 對獨態度變更 强硬策으로轉換乎

【倫敦二十九日發同盟】三十日의重大閣議를 目前에두고倫敦政界에서는 英國政府의취코問題에關한 態度에對하야各種觀測이行하고잇는바 AP倫敦支局에서는 二十九日에最近 英國이從來의 和協政策으로부터 漸次對獨强硬方針으로 轉換하고잇다고하야 三十日의閣議에서는 어떤 方針의 最後的決定을보게되리라고 豫想된다 卽英國政府는 취코危機가 全歐紛爭에까지 發展될可能性이잇는點을 重視하고 境遇에따라서는 獨逸政府乃至히틀러總統에게 直接警告를 發하지나 안흘까고 觀測된다 二十九日休暇로부터 歸京한 체임벌린首相과 할리팍스外相을 中心으로 終日閣僚間의 來往이頻繁하며 特히 伯林으로부터 招致된 駐獨大使 헨더슨氏도 列席케한後 오랫角度로부터 討議되엿다 그리고 消息通의 報道에 依하면 체임벌린首相은 三十日閣議決定事項을 提携코 倫敦을出發 스코트랜드의「버르모랄」宮에 伺候하야 조지六世陛下께 閣議決定을 報告할 豫定이다 그리고 閣議가 對獨强硬策을 決定하고 獨逸政府에게 警告를發하게될 境遇에는 問題의 重要性에 비처 政府首腦는 在野黨領袖와會見하고 特히 諒解를 求하야支持를 懇請할것으로 觀測된다 駕臨上은 체首相 下는駐獨大使

主力艦, 巡洋艦等 米海軍의建艦計畫

【紐育二十九日發同盟】해랄드·트리뷴紙의 二十九日華盛頓特電에 依하면 米國海軍當局은 最近明年一月米國議會에 提出할 大한 明年度海軍擴張計畫의 立案을 完成하엿다고 하는바 그 報道內容은 如左하다 海軍當局이 漏洩하는바에 依하면 來議會에 提出할 海軍擴充再建案은 如左한것으로 彪大한 內容을 가지고잇다

一, 追加建造의 新艦艇은 主力艦一隻乃至二隻인바 그隻數는 大統領의 同意를엇게되면 四萬五千噸級으로할 豫定이며 其他巡洋艦四隻 驅逐艦六隻 潛水艦六隻乃至八隻

一, 海軍現役의 兵員을 五千名 增加, 그리고 海軍當局은 이外에 一萬四千噸乃至一萬八千噸級의 航空母艦一隻의 建造도 愼重考慮中이라고한다 一方海軍設計部는 過去數個月동안 四萬五千噸級主力艦의 設計를 進行하고잇섯는데 最近完成이 가까운模樣이다

共產思想撲滅코저 朝鮮防共協會組織

防共思想普及 日本精神을昂揚

三橋警務局長談

總督府警務局에서는 支那事變勃發以來 國際情勢混沌하야豫測을不許하며 事變의前途逝斷키難하야 時局은 益益重大化하므로 擧國一致 國策에順應하고자 朝鮮防共協會를組織하야 三十日그 規約, 趣意書, 三橋警務局長談話等을 正式으로發表하엿다

本協會는 日獨伊防共協定精神에基하야 共產主義思想及其運動의 誤謬를周知시켜서 그撲滅防衛를 期하는 機關으로 事務所를 警務局內에 置하고 各道에 聯合支部를 設置하며 各警察署內에는 支部를 置하게되엿다 協會의 總裁는政務總監

名譽顧問은 朝鮮總督, 朝鮮軍司令官, 鎭海要港部司令官을 推戴하며 會長에는 警務局長이 任命되엿는데 이에對하야 三橋警務局長은 左와如히 말한다

近代戰爭은 所謂國力戰이오 一國의 武力은 勿論政治經濟外交思想等온갓 方面의 總力을總動員하야 이에 當치안코면안된다 特히 武器업는戰爭인 思想戰은 武力戰에 先行하며 或은이와 併行하며 或은 그終末後에도 繼續되는것이니 銃後國民으로서 거장注意하지안허서는 안된다 換言하면 國民의 一人一人이 思想戰士로서 相對方의 後方攪亂을 爲한 思想戰에 잇서서의 有力한 戰鬪員이 되는것이다 現思想宣傳에 對應하야 銃後國民으로서 結束을 堅固히하야 이에當치안흐면 안되는것이다 저 歐洲大戰時의 獨逸은 武力戰에는 勝利하엿스나 思想戰에 敗하엿다 그때문에 獨逸은 마츰내 聯合國側에 屈服치 안흘수업게되엿다고한다 어거러 思想戰은 近代戰爭에잇서서 極히重要한役割을 하고잇는것이다 一時 全國的으로 蔓延되는 共產主義運動은 今日에 잇서서는 蘇聯의 別動隊인 코민테른의世界赤化의 一方策이며 또蘇聯의 帝國主義的野望을 達成키爲하야서의 思想謀略의 一手段인것이

完全히 暴露되여 勞働者農民을 爲한 社會改造等은 到底히 不可能한것이며 一方 我國體와는 永久히 不相容의 思想인것은 至今다시 贅言할必要도업다

朝鮮에 잇서서의 共產主義運動은 數年前까지는 相當히 活潑하야 健全한 國民思想涵養에 不少한 障碍를 招來하엿고 至는 多數의 靑少年으로하여금 其前途를 그릇되게하는等 여러가지 弊害를 齎來하엿든것이니 이가튼 根絶진 共產主義運動도 滿洲事變을 契機로 昭和七年頃부터 漸次 衰微의趨勢를 밟드니 昨夏에勃發된 支那事變에 따르는 一般國民의 愛國熱의 昂揚으로因하야 益益 衰微不振狀態에 빠지고잇는것은 참으로 기쁜現象이다 그러나 一面同今도朝鮮內의 主義者中에는 依然히迷夢에서 覺醒되지못한者도 不無하고하기어려우며 더구나 第七回世界大會에서 決定된 所謂人民戰線運動에 對하야도 相當히 注意를 要하는

것이잇스며 其他各般의 狀勢로 보아 이運動의 擡頭에 關하야는 반드시 樂觀을不許하는바가 엇는만아니라 時局이時局인만큼 徹底히 그防止와 撲滅의必要를 痛感하는바이다 當局에서도 如上의 實情에비추어 今番防共國策에 順應하야 官民一致强力한 組織下에 防共思想의 普及徹底를 期하고 所謂國民防共의 實을擧하는 同時에 國體의 明徵을 圖하기 爲하야 日本精神의 昂揚을 圖하기 爲하야 朝鮮防共協會의 組織을 企圖하고 앞서부터 準備中이든바 最近그組織이 完了되엿스므로 近近 各道關係主務者會同을 開하야 地方組織의 具體的活動方法等을 協議한後 實行에着手코저하는바로 此際言論機關은勿論 널리 官民各位의 協力을바라는바이다 그리고 朝鮮防共協會規約은 別紙와가튼바 그槪要는 如左하다

一, 組織 總督府內에 本部를 置하고總督府內에 各道에 聯合支部를 置하며 各警察署에 支部를 置하고 支部下에 地方實情에따라 防共團, 防共會等을 設置하고 또必要에따라 各職業別로 防共團을 組織하고此等一連의各種團體에 有機的連繫下에 所謂國民防共의 實을擧하게되엿다

一, 防共思想의 宣傳方法 本部에서 定例的으로機關紙를 發行하야 各方面에配布함 機關紙의發行 防共團員을 指導訓練함 防共講演會, 座談會, 防共週間, 又는防共데ー等을開催하는同時에 팜플렛트, 삐라, 포스터ー等을作成配布함 關係方面과連絡하야 所謂 主義者의 善導를圖함 防共上必要한事項을 調査 研究함

그리고 近近各道關係主務者會同을 開催하는同時에 最近機會에 思想關係者會議 를 開催하고저 目下準備中이다

漢口陷落後에도 蔣政權을繼續膺懲

板垣陸相의車中時局談

【盛岡電話同盟】軍務關係로靑森縣을視察中의 板垣陸相은 二十九日午後盛岡으로 向하는車中에서 當面의時局問題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一, 漢口陷落은 時日問題로되엿는데 이를 轉機로하야 蔣政權이 如何한 動向을보일는지 아직斷案을 내리기는 至難하다 그러나 我方은 蔣政權이 屈服지안는 以上潰滅식히기까지 膺懲할밧게업슬것이다 國民政府가 我方의要求를全面的으로容納反省하야北支中支等의新政權傘下에들어오다는 新事態가發生하여오면 생각할點도잇스나 그境遇라도 蔣介石을首班으로하는 政府는 絶對로相對로할수업슴은 勿論이다

一, 蔣政權이 漢口陷落後 어데로갈것인가 여러가지로 想像되나 交通이不便한 雲南, 四川等의 山地에 遁入하여서는 大軍을維持할수업스니까 廣東廣西方面에 移轉하지나안흘까 想像되므로 그境遇의對策도充分히생각하고잇다

一, 明年度豫算編成에當하야 陸軍豫算은 當分間 減少하는일은 업다 特히 明年度以後의 航空機擴充은 가장 緊急을要하는 問題로豫算도多額을 必要로하는데 其他에도 新國防을 充實히할必要가잇다

一, 我國民이 今次支那事變의本質을 明確히 把握하여갈것이 極히 必要한것이다 元來日滿支三國이 協力하야 共存共榮을 圖할것이다 日滿支三國이 서로존재잇고 經濟體制를 建設하게되면 東亞는安定된다 支那事變은 이三國 卽日滿支의 經濟體制의 道程이라고 보지안흐면 안된다 日本의 經濟는 從來輕工業輸出貿易을 基本으로 하엿스나 이는 重工業에 重點을두어야하엿슬것이 아닐까 하거든 重工業에는 彪大한 資本을 必要로하므로 政府가 스스로 陣頭에서서 民間과 協力하여가지안흐면 안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統制라는 問題가 생겨된다 要컨대 武力 生產力 建設力이 完全히 結束하여야 비로소 國家의 總力이 發揮된다 今次支那事變에 잇서서는 我國은 國家總力戰의 遂行中이니 日滿支經濟體制가 完成되면 不足資源도 補充되며 어에新時代의 建設이開拓되는것이다 國民은 今次聖戰의 目標를 어데두지안흐면 안된다고생각한다

(寫眞은 板垣陸相)

萩原次官北朝鮮視察

萩原拓務次官은 時局對策調査會出席次 一日午後「여가조 기」로 入京할터이며 同日 卽時北朝鮮으로向하야 咸南北의 水害狀況及 張鼓峯事件現地를 視察한後 六日다시 歸京할豫定이다

大陸經濟研究所等主催의 戰時經濟講演會에 臨한後 四日發歸東할 豫定이다

風陵渡完全占領

山西省最南端據點

【石家莊三十日發同盟】我眞野部隊는 二十八日午後六時 接戰二晝夜後에 山西最南端에 位置하야 黃河를 隔하야潼關과 對峙하고잇는 風陵渡를 完全히占領, 黃河河畔에 노피 日章旗를揭揚하엿다

歐亞航空公司 漢口香港航空路再開折衝

【香港廿九日發同盟】歐亞航空公司의 香港 漢口線停止에 關하야 同社總經理李景樅은 急遽漢口로부터 昆明으로 向하엿는데 다시 滇內經由香港으로와서 漢口香港線再開에 關하야 各方面과 折衝을 進行中이니 歐亞航空公司의 缺航은 獨逸人파일로트가 自己身邊의危險을 理由로 操縱을不肯한때문이라고 同社에서는 發表하엿다

南岳廟敵을擊退

【〇〇三十日發同盟】六安南方韓 淸河를넘어 西進中인今部隊를 爲始하야 各部隊는二十九日午後七時 淸河支流를 渡河하자 卽時南岳廟(六安西南方六十里)附近에서 六安方面으로부터 退却하여오는 約八百의敵과 正面으로 遭遇하야 곳이에猛烈한 銃火를퍼부어 大打擊을주고 西北方으로潰走케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三十日의定例閣議는 午前十時四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板垣陸相缺席)되엿다 昭和十三年度 第一豫備金使途의件을 決定한後 末次內相으로부터 通牒의 經濟警察取締를 中心으로한 臨時警察部長會議의 經過에 對한 또永井遞相으로부터 九州以田港其他港灣修築에 對하야 宇垣拓相으로부터 內地在住朝鮮人 勞働者의 現狀等에 對하야 各其說明이 잇슨後 同十一時散會하엿다

鍾祥街道(漢口西北)要衝 京山城을猛爆擊

【〇〇基地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正午 我海軍航空隊의精銳〇〇機는 一大編隊群으로써 快晴을利用하야 突然 漢口의 西北方 鍾祥街道의 要衝京山을急襲大爆擊을 敢行하고 京山城壁上에 새로 構築된 軍司令部軍需倉庫兵舍及 輸送自動車群과 移動中의敵大部隊에 分散配置된 山砲, 野砲, 小機, 鐵兵乘, 其他重要機 軍事施設을 正確한 直擊彈으로 餘地업시 粉碎하엿다 爆藥其他炸裂에依하야 京山全城은 濛濛한黑煙과 紅焰에 싸혀서 겨우 脫出한 敵軍은 어리저서 各城門으로부터 四散되는 光景이 高度〇〇米機上에서 確認되엿다 어리하야 我大空襲部隊는 煙中에 潰滅된京山을 뒤로하고 全機悠悠基地에 歸還하엿다 我空襲에 潰滅된京山은漢口西北에잇서서 漢口, 武漢三鎭防備上 또는 京漢線南端防備上極히 有力한 堅陣을 벌르고 敵은最近一般住民을 强制的으로 避難시켜서 城內外一帶에 各種軍事施設을 하는同時에 作戰本部를 移駐하야 新編青年團을 駐屯시켜고 軍需品을 集積해오든것이다

我陸軍荒鷲隊 德安街道를猛爆

【〇〇二十九日發同盟】陸의荒鷲 下村, 前島, 釘宮各部隊의 〇〇機는 二十九日午前에 繼續하야 午後五時夕陽녘에再次 德安街道에依據한敵增援部隊를爆擊 巨彈을 퍼부어多大한損害를주엇다 또田中部隊指揮하는 〇〇機는 星子西南方〇〇附近에엇는 〇〇部隊에게 危險을무릅쓰고 食糧과彈藥을 投下하야 全將士의感謝의歡聲을 바드는同時에 그進擊을 容易케하엿다

臨時政府李福和氏에 陸軍大將을追贈

【北京二十九日發同盟】剿共剿匪工作에 我軍과 協力하야 多大한 好成績을 나타내고잇든 剿共軍第一路總司令李福和氏는 지난 八月七日스스로 陣頭에서서 奮戰中마츰내 陣沒하엿다 따라서 臨時政府에서는 同氏의 生前勳功에비치어 陸軍大將을 追贈하는同時에 祭粢料五千圓을 贈與하고 厚히同氏의 靈을弔慰하야 그壯烈한 行爲를 顯彰하엿다 그리고 李福和氏의 後任에는 現剿共軍第一路第一師長 李英氏로 하여금 兼任케하게되엿다

蠟山東大教授入京

南北支那滿洲視察中이든 東京帝大教授蠟山政道氏는 歸途二十一日入京, 錦町鎌田氏邸로드러갓다 九月一日은時局研究會, 二日은 朝鮮實業俱樂部, 三日은 城大

失業對策資金 預金部에서融通

【東京電話同盟】厚生省에서는物資動員計畫에依한 失業對策에要하는 資金으로 總額約六百萬圓의 預金部融資를 融通하라고大藏省과 折衝中이엇든바 大藏省에서도 時局에비추어 緊急을要하는資金으로 이에 預金部運用委員會에서 決定한 社會事業資金六百萬圓에서 必要에應하야施用融通하기로決定 九月上旬의運用委員會에 諮問하야 그承認을求하게되엿다

[illegible]附近敵全[illegible]

【香港三十日發同盟】消息通의 報道에依하면 [illegible] 西進中의我軍은 二十九日[illegible] [illegible]一帶에 [illegible] 支那軍陣地 [illegible] 支那軍을 制壓하고잇다

時事解說

對蔣宗教借款說

漢口大陸落을 압두고 蔣政權은 英, 米, 佛, 蘇等 歐米列國의 物質的, 精神的 援助를엇고저 策動하고잇는데 最近上海方面에서 傳하는 情報를 보면 米國을中心으로 各國宗教團體와 蔣介石政權間에는 對蔣援助의 一形式으로 所謂宗教借款에 對하야 交涉이 進行되야 國際的宗教借款團이 成立되고 某國人宣教師가 漢口에서 蔣介石等과 借款의 代償에關하야 折衝中이라고 한다。

◇

이借款은 純全한 宗教的 性質의것으로 財政難에 허덕이는 國民政府의 窮狀을 援助하는同時에 그代償으로 支那에서 基督教勢力의 强化擴張을 꾀하려는것인데 借款代償으로 傳하는條件은

一, 國民政府는 全外人의 宗教的 自由를 承認한다

一, 外人基督教會에 [illegible] 國民政府는 [illegible]

一, 將來基督教[illegible] 便宜를준다

는것等이다。

◇

蔣介石政權이 前記條件을 受諾하면 宗教借款團은 [illegible]

東西文化協議會 發會式大盛況

【北京三十日發同盟】日支兩國의 文化提携와 東亞文化百年의 基礎確立을 目標하고 設立된 東亞文化協議會創立大會는 첫가을의爽快한 날인 三十日午前十時부터 中南海(懷仁堂)에서 盛大히 擧行되엿다 지난二十六日 北京到着以來 支那側代表와 懇談을열고 會議를거듭하야 同會誕生에 協力하든 日本側代表 酒井忠正伯, 團長小山松吉氏以下 帝國學界教育界의 權威者들을網羅한 二十四名, 이에對하야 支那側 行政委員長 王克敏, 教育部總長 湯爾和兩氏를 爲始하야 文教關係有力者들 四十六名의 代表가 今日에 一堂에 會合하고 寺內最高指揮官, 喜多少將, 澤田大使館參事官, 堀內總領事, 臨時政府各要人等多數의 參列者가 會堂에가득찻다 定刻이 되자 먼저 一同은會場正面에 揭揚된 日支兩國 國旗에 對하야 禮拜한다음 支那側主席代表 王克敏委員長, 日本側代表者團長 酒井忠正伯이 起立하야 各其開會辭를 述한後 會長推薦에드러가 湯爾和總長이 滿場의拍手를바드며 初代會長의椅子에 就任하엿다 다음湯爾和會長은 壇上에서서 漢文의 創立宣言文을 朗讀한後 酒井團長은 日本文의 宣言文을朗讀한 다음 臨時政府代表로서 王克敏氏의 祝辭가 끗난後 日本側으로부터 寺內最高指揮官 澤田參事官, 喜多少將의 順으로 祝辭가 잇서 各地로부터 온 祝電披露가 잇슨다음 同六時지나 閉會, 一同은 [illegible]에 모혀 紀念撮影을하고 意義깁흔大會의幕을 나리엇다 그리고 一同은 閉會後東興樓에서 午餐을가티하엿다

八面鋒

◇ 히總統 短奏를 기흥참이지 취코問題에 態度軟化。
◇ 粵漢線이不通, 歐亞航空公司 休業, 漢口는 空陸으로 孤立化。
◇『孤立』에『無援』은 제유에셋국,『以夷』가 品切되니『制夷』도 絶望。
◇ 明年度에는 增稅는안키로, 財源은 公債로獨擔。
◇ 四百餘州로 퍼지는戰果는 公債의保障을 泰山우에。
◇ 朝鮮防共協會創立, 張鼓峯事件以後意義는加重。
◇『非常時之嘆曲』伴奏에따라 罹災救助基金令於是乎出動。
◇ 但, 實效는 十年後일에나 生日잔치前, 일에농안이問題。
◇ 深刻한 住宅難을 尋常齋福(?)한 悪徳家主에 膺懲의鐵槌。
◇ 膺懲의 聲華는 드른지既久! 惜家人伸冤은 將來가悠久。
◇ 名門巨富의 社會義務的敎化事業(?)이 善惡은[illegible](?)

人事·集會

◆安永傳七氏(殖銀釜山支店長)同上
◆林憲氏(殖銀計算課長證券課長) 新任人事次來社
◆高橋隆治氏(培材中學校長)安息年으로 歸國中爲任人事次來社
◆金能秀氏(平壤商工會議所副會頭)二十八日 平壤府陽路里 二七百宅에서 逝去 永訣式은三十一日午前九時 [illegible]에서

最高の品質
最新の設備
最大の產額
キッコーリウ醬油
野田醬油株式會社朝鮮出張所

時急한師範教育의擴充

初等學校教員難深刻

明年도 六百餘名不足

內地로부터의 教員移入도 情勢不許

學務局對策을 銳意研究中

전조선초등학교에 대하야는 금년부터 종래의 십개년계획을 오개년으로단축하고 또이부제(二部制)까지 실시하야 착착 그추성에 매진하고잇는중이나 어린중계획을 실시함에 잇서서 제일필수조건이되는 교원난(教員難)에 봉착하야 오개년계획 제일년인 금년부터 이에대한 고심이 여간하지안헛다 즉 금년도에 전조선에 신설되는 학급이 일천삼백칠십팔학급이엇는데 어와동수의 교원을보충함에잇서서 사범학교금년도졸업자로는 월등하게부족하야 내지에서 유백칠십명을 초빙하야왓고 교원시험등을통과한 삼백명과 기타 촉탁교원들으로겨우 난국을 면하엿섯다 어와가티 금년만은 어떠케 간신히꾸려나갓스되 오개년계획 제이년인 명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유백학급을 더증가하야 경기도의 어백여학급 증가를비롯하야 설로 일천구백칠십팔학급이 증설되므로 어와동수의 신교원을 채용하여야만될터인데 명년봄에 경성사범(京城師範) 경성여자사범(京城女子師範) 대구(大邱) 평양(平壤) 전주(全州) 함흥(咸興)의 여섯사범학교에서 나올졸업자수효가 일천삼백오십명밧게 안되므로 퇴직자사망자들 교원시험 통과자와 촉탁교원들으로 보충한다 치더라도 결국유백여명의 교원이실제부족하게될형편이다 어부족교원을 명년도에도 내지에서 가급적이입하기는하겟스나 내지에서도 어미교원의부족을 초래하야 대용교원까지를 쓰고잇는터이고 설혹조선으로 히망자가잇더래도 각부현(府縣)에서 허락하지안키때문에 명년도의 내지이입교원에 대하야도 낙관을 할수업는터이다 이리하야 총독부학무국에서는 방금그대책을 예의연구중으로서 우선현재의교원실수를 확정하게 조사하기로하야 수일전 각도에 금년도이후 교원의 사망, 퇴직상황이며 그부족수등소상한 실황을 보고하라는 통첩을 띄웟다

斷髮盛行

【澁川】국가비상시국에 직면하야 물심양면으로 긴장함은물론 일반민중의모표가되고저 군내각관공서직원은 자발적으로단발을실행하야 유두장발자는 한사람도볼수업슬만치 철저히되엿스며 일반민중도한 각성한바되어 착착단발을실행하야 불원한장내에 전원단발을보리라한다

白衣勇士卅四名

今朝龍山驛着列車로歸還

북지산서전선에서 용감히싸우다가 명예의 부상을한 도총시 소위(渡總市少尉)이하 백의용사 삼십사명은 삼십일오전 일곱시유분룡산역착 열차로귀환하엿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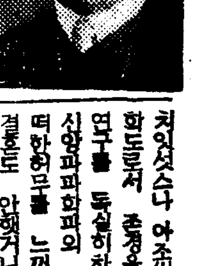
醫師藥劑師等 試驗規則改正

종래의 의사(醫師)치과 의사(齒科醫師)약제사(藥劑師)의 시험규측에는 시험에 합격하지안터래도 수험과목중 합격과목에는 합격과목증명서를 주어서 삼개년동안 유효하게하야 그합격된 과목의시험을면제하야 수험자의 편의를 도아주고잇섯는데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의 시험규측은 모두 지난소화 구년에부령(府令)으로 제정되어 소화십일년 일월일부터 시행되게되엿슴으로 현재수험중인 사람은 십일년이후 논거지반자격을 갓지못하는 상태에이르럿다 그들이 응시할수잇는기간도 겨우 이개년반 밧게 남지안흔터이다 총독부에서는 이수험자에 편의를 주기위하야 이런 합격과목 증명서를 가지고잇는 그합격과목의 시험면제기한에 대한 삼개년 이란 제한을 철폐하야 주기로되여 십일후 부령으로써 시험규측을 개정하게되엿다 그러나 이개정은 벌써시행되어 이미 합격증명서를 가지고 잇는사람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안키로 되어잇는것이라고한다

苦悶의學徒말업는죽엄

世專出身의젊은카도릭信者金東植君

自宅에서結頸自殺 遺書도업는最後!



과학과신앙의중간에끼여 정신적인 고민을참지못함인가 젊은 카도릭의 학도가 목을매고 자살하엿다—삼십일새벽한시경시내 주교정(舟橋町)십륙번지 김정현(金鼎鉉)씨의 외아들김동식(金東植)(二六)군은 자기방에서 목을매고 자살해버리엿다 유서도아모것도 남겨노치 안헛스니 원인은 전연알수업는데 그는작년 봄에세부란스의전을 졸업하고그 학교에머물너잇스면서 임상연구하는한편 시내명치정(明治町) 어성모회당단셔교회의 신자로 교회일 을보고잇던중이엇다 학교에서는 착실한학도로서 선생과지우들의 신망이 노풀뿐아니라 두뇌도 명석하야장래가 촉망되던터인데 자기집에도 부유하며 원만한 종교적가정으로 한등의 자살할 이유를차즐수업건만다만 그의 평소태도로보아 연구하는 과학과 신앙의 모순으로 말미아마 정신에이상을 가저오지나 안핫나생각된다(사진은김동식군)

天主公教堂側談 그는독실한신자일뿐아니라 대단히 미듬성잇는 청년으로 교인들의 신망이 두터웟섯습니다 몸도 튼튼할뿐아니라 공부도 착실히하며그 집이 전가족이 모다 신자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던터입니다 아까운일입니다

同窓生 朱復生談 동식군이 자살햇다고는 의외입니다 연구실에서 어때까지가 치엇섯스나 아조씩씩하고 쾌활한 학도로서 존경을밧던터입니다 그의 연구를 독실히하는까닭에 그의 신앙과과학의 사이에끼여 어떠한고민을 느끼지나안핫슬가요 결혼도 안햇거니와 연애가튼것도업섯습니다 아까운일입니다

投宿客이飮毒

이십구일오후일곱시경에 부내 청엽정(靑葉町)삼정목 윤종여관(尹鍾旅館)에 투숙한 자칭개풍군중면대흥리(開豊郡中面大興里) 김개창(金開昌)(二五)이란자는 삼십일오전아홉시가넘도록 일어나지안흠으로 주인이 수상히여기고 방문을가보니 방문을 굿게닷고 다량의「칼모친」을 먹고 고민하고잇스므로 즉시 부근청엽의원(靑葉醫院)에 입원치료중인바 생명에는 관계가업다한다 원인은 취직을 꿈꾸고 서울에 왓스나 뜻대로되지안흠으로 비관하엿다한다

國防獻金

【通川】북면일공립보통학교에서는 [illegible] 심상소학교 [illegible] 에서는 [illegible] 오락회를개최하엿다는데 회원일동은 [illegible] 국방헌금 하야달라고 통천경찰서에 기증하엿다한다

新上文峰間復舊

今日부터南北行列車開通

【元山支局電話】불통중이던 함경선(咸鏡線)의 문봉(文峰)지상신상(新上)간은 그간불면불휴로써복구공사를 한결과 삼십일오전여덟시에 경성을 떠나는 제오백사십오렬차와 오전여섯시에 성진(城津)을 떠나는 제오백사호렬차로부터 개통하게되엇다

少年屍事件

變死로判明

태평통 서일정목의 종로소년 시체유기사건—이십구일밤 아홉시반경 종로삼정목 종로로(鍾路)아래서발견된 신선범(愼善範)(一)소년의 시체유기사건은 타살의 혐의가 잇다하야 소관 종로서에서 형사대를 소집하고 사건의 관계자들을 검거취조하야 주이가 추모되더니 삼십일오전 시체를 해부한결과 이것은타살이 아니라 극도의 영양부족으로비렵을이르켜 죽은것이 판명되엿스므로 검거하얏던 용의자검인을 석방하고 일단락을 지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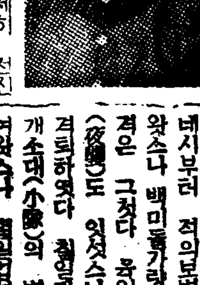
防空防護實地講習

今日府廳아페서擧行

총독부사회과에서는 각도청 방공담당자를모아 지난이십오일부터 삼십일일까지 태평통 체신회관(遞信會館)에서 방공실무 강습회(防空實務講習會)를 개최중인데 이것은 각도방공사무당당자로 하야금 이방면에 관한체계잇는 지식을 습득시켜 방공계획 림긴 방공지도 기타에 만전을 기하려는취지이다 어십구일 어폐회후경성부청아페서 새로고안된 구급차(救急車)와 산수방화겸용차(撒水防火兼用車)등을가지고·방공방화에관한 실지강습을 하엿는데 산수방화겸용차라는것은 보통때에는 거리에물을뿌리는데쓰며 불이낫슬때에는 소방자동차의 역할을하는지극편리한것으로서 연일은 삼십일 오후한시반 부터 시작되여 수천군중 환시속 에서 볼만하게 이루어졋다 (사진은 방공연습)

勇壯! 爆彈을안고 敵의戰車아페突進

張鼓峰事件에參戰한 富永大尉 談



지난번장고봉(張鼓峰)사건으로 현지에나가서 분투하고도라온 ○부대부영구태랑(富永龜太郞)대위는 삼십일오전열시 조선군사령부에서 종군기자단에게 실지 전투경과상황을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우리부대는 이일밤에 출동명령을 밧고 어일정오에 착진하야 사초봉고지(沙草峰高地)로 건너서 두만강(豆滿江)을건너 고지에 이르럿다 사초봉(沙草峰)을 화력으로 공격하야 우리는 ... 일모일전 적과 마조잇섯다 그동안에 벌써 적은 공격준비가 다되여잇서서 공격하기시작하엿는데 칠월삼십일일 팔월일일 량일에 반드시해는 상당히심하엿다 후방으로부터 접전령을 증원하야 유일에는 비행기가 날러오고 보병의사격도 맹렬하엿다 어십수기가 한꺼번에 날러오고 일천오백명의보병이 사격하여오므로 우리편에서도 전부이러나서 사격하엿다 어때에 적의비행기는 경폭기(輕爆機)와 중폭기(重爆機)가 날러와서 공중으로 쏘앗다 사초봉(沙草峰)을 다 고성(古城)의 중간에서 뚜러지고 대를 쏘아떠러트렷는데 이때에 참호(塹壕)에서 모두 뛰여 나와서 만세를불럿다 약한시간동안 공격(攻擊)이잇슨뒤에 전차(戰車)가 오십대가 일제히 전진하야오는것을 속사포(速射砲)로 쏘아서 이십수대를 격파하엿다 일본군사는 참으로 용감하엿고 적의 전진을 막고 폭탄을안고 적의 전차에뛰여드러가서 터진일도 잇섯다 우리군사들은 노서아「전차」는 대단치안흔것으로 생각하게되엿다「전차」는 극히 구식인것파 최신식인것도 잇섯다 오일오후 네시부터 적의보병이 공격하여왓스나 백미돌가량되는데서 공격은 그쳣다 육일밤에는 야습(夜襲)도 잇섯스나 어렵지안케 격퇴하엿다 칠일과 팔일에는 일개소대(小隊)의 병력이 공격하여왓스나 별일업섯다 장고봉의 정면싸움은 퍽 맹렬하엿다 일본은 물론 로서아군사도 매우 끈기가잇게 맹렬히 욱, 칠일 팔일 사흘을 계속하엿다 육일부터 칠일새벽까지가 제일 격렬하엿다 십일일정오에 정전협정(停戰協定)이 되엿는데 그동안에 대체로 적은 주력을장고봉에 모으고 잇섯다 인상의기픈것은 포격이엿는데 야포(野砲) 산포(山砲)십산치포 십구산치포의 위력은 대단하엿다 포격으로 다소손해를 엿엇다 칠일팔일에도 비행기가 날러왓는데 급사격(急射擊)폭격이엿드라면 무서운 것이엿지마는 일천수백미돌이나되는 노픈곳에서만 폭탄을 던지고 사격을하고 엇섯기때문에 별로효과가 업섯다 우리편에서는 부대장의 명령에따라 불확대주의(不擴大主義)로방어(防禦)만하고 잇섯지마는 흥흥히차잇다로서아병대의돌격(突擊)은 삼십메돌가량이 철조망까지 「우라우라」 소리를 질르면서 달려오는것이다 그리고 그뒤에는기관총을 가지고기다리고 엇다가 우리편에서 열개소대가량 나가면쏘기 시작한다 로서아군사 도용감한자는 철조망을 넘어서 오는것도 잇섯다로서아군사의저격(狙擊)은 굉장하다고하는 말도잇지마는 나는 그렴지안타고 생각한다 수류탄(手榴彈)을 만히 던저왓는데 이십미돌가량되는곳에서 던지고잇섯다 일본군사도 삼십미돌가량은 던질수잇다 로서아군사는 키가굉장히 큰사람도 잇거니와 키가아주 적은사람도 섞여잇섯다 부대장으로부터 드른적의 병력은 우리편보다 구배가량된다고하엿다 그러고 적이 쏘은 탄환은 약십오만발 가량된다고 하엿다 필일오전두시에는 우리 편에서도 련속하야 오륙백발가량 쏘앗다 적의포격으로바다 량이 한가지로 (古城)부락은 이름밧게 남지안케 타고잇섯는데 수십채가타버렷다 참으로 미안한일이엿다 나는 간 곳마다 조선사람들로부터 위문을 밧앗다 본부에서는 비행기가 출동하지안는 가하고 걱정하는 빙충맛은것을 보앗는데 우리군사가 우은일 한것은 그들조선인에게는 나쁜 인상을 주어가엿다 그러나 결코 일본군사가 약해서 참고 잇섯든것이아니고 정부의대방침에 따라서 그러하엿다는것을 잘알려서 널리 이해시키고십다

皮革類使用制限으로 問題되는業者의救濟

九月一日로實施期日臨迫한府內靴商組合代表

總督府에 '皮革스톡' 處分策陳情

지난이십삼일 부령(府令)제백칠십사호로써 피혁(皮革)사용제한이 발포되고 오는구월일일부터 드듸어 실시되게되엿는데이에따라 피혁을 재료로하야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양화(洋靴)며 가방「트렁크」운동구 지갑등등 모든 생산업자들이 치명상을 입게되여 피혁업계에 일대충동과 파란을 어르키게되엿다 아직 이사용제한령이 발포되기전에도 나날이피혁류의가격이 등귀하야 일반업자 특히만흔자본이업서서 한번에 그재료를 만히사드리지못하는 중소업자들의곤난이 여간하지안핫섯는데 이제 구월일일부터는 구두, 운동구등에는 일제히 우피(牛皮)를 사용하지못하게되엿고 또「스립퍼-」가방「트렁크」「랜드셀」모자「핸드백」지갑등에는 우피뿐만아니라 마피(馬皮)양피(羊皮)경피(鯨皮)까지 사용할수업게되엿스므로 이들제조업자들이 모두치명상을 입게된것이다 그중에도 제일만흔것은 구두제조업자들인데 경성부내에만하여도 삼백여명이나되는터이라 전조선에는 막대한수에 달할것으로 그들 특히 중소업자들의 금후 현업유지가 사회적으로도 큰 걱정꺼리로 되어잇다 방금 총독부상공과에서는 어들의생업유지와 또는 대용품사용이며 전업등에 예의고구중이나 구제는 도저히 기할수업는터이다 삼십일 오전열시 피혁제화업자조합(製靴商組合)대표자 다섯명이 총독부상공과를 방문하고 그들의 곤경에대한 진정을하엿는데 금후우피등을 사용하지못하는것에대한 가격은 더말할것도업거니와 현재「스톡」으로가지고잇는 원료도 사용하지도못하고 도총독부에서 매상(買上)을 하지도안흐니 매상을하여주던지 사용하도록 하라는것이다 어「스톡」처분문제에 대하야는 내지에서는 일부매상을하고잇스나 총독부에서는 여태까지 아무런 방침이 서잇지안허서 어떠케하여주기로 할지에대하야서도 여러가지로고구중이라고한다 어피혁사용제한에 대하야 상공과 영목(鈴木)사무관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오늘 화상조합대표자들이 진정을 왓섯슴니다 피혁을제한하는것은 국책상불가피의일이니까 구두를 짓는데 소가죽을 못쓰게되엿스니 돼지가죽으로 대용하도록 할것과 기타상품도어피(魚皮)를대용할수밧게업다고 말하엿슴니다그러나 현재가지고잇는「스톡」을매상하게될른지 어떠케 처분할른지는 아직문제로되여 잇습니다 운운

一幕演劇인 "媤家沒殺事件"

誣告罪로關係者送局

【東萊】서사촌(西四寸)과 내통하고 시가의 전가족을 독살하려고 하엿다는 [illegible] 사건은 그서에서 착수한이래 여를 두고 취조를 거듭하여오든바 [illegible] 최천용(崔千用)과 [illegible] 원히숙(元喜淑)(二〇) [illegible] 고 어가족 [illegible] 최천용의 [illegible] 이약속에 [illegible] 원히숙이 [illegible] 최천용의 인망 [illegible] 가가족의 매질과 학대에 견디다못하야 그간허위자백을 하엿다고 [illegible] 이와 [illegible] 던져진 [illegible] 이외 잠잠하게하여오는 [illegible] 하엿다고한다

學校勤勞報國隊 "實績所見"을調査

총독부에서는 지난하기휴가를이용하야 전선각학교의 근로보국대를 조직하야 각지에서 근로봉사작업을실시하엿는데 다시금 금년도의 실적을 조사하야 명년도 근로보국대의 활동에 도움이되게하고자 각도지사와 각학교장에게 그실적에 관하야 다음과가튼 사항을 조사보고하도록 요구하엿다

一、實施期日及期間에關한것
二、事業決定에關한것
三、參加學年、參加生徒、不參加生徒에關한것
五、勞務種類及作業時間에關한것
六、宿舍에關한것
七、給食에關한것
八、醫療衛生에關한것
九、指導者와本部의指導에關한것
一〇、本事業의精神的效果에關한것
一一、其他將來參考될事項에關한것

中等教員庭球戰

中等庭球聯盟主催의

來九月十四日부터四日間

私立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와本社後援의 第八回私立中等學校教員庭球大會는 來九月十四、十五、十六日(午後四時)、十七日(午前一時)의 四日間에亘하야 昭和町署成中學一三에서 盛大히 擧行하기로되엿는데 詳細한事項은追後發表하기로되엿스며 昨年度優勝校는 徽文中學이며 第二位는 中央中學이엿섯다 그리고 加盟校는 養正、普成、中央、培材、徽文、東星、大東、東星等의 九個校이다

卓球代表明朝歸京

第七回全國都市對抗卓球大會에 朝鮮代表로 出場하엿든 朴在衡、李東億、金成鎬、崔根植、朴觀權等 一行五名은 滿洲、大阪、名古屋、京都、神戶、廣島、下關等地로轉戰한後 明三十一日午前七時十二分 京城驛着列車로 歸京할터이라한다

朝鮮神宮拳鬪大會開催準備進捗

今秋에열릴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에 새로히 아마튜어拳鬪와 非常한人氣를 이끌고잇는 아마튜어 自轉車競技를 追加하기로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日程과諸般事項을 討議決定코저 全朝鮮아마튜어拳鬪

運動界人事

▲車三善君(?庭球選手)이번 [illegible] 支店에榮轉

色鉛筆

서울사람들이 혼히쓸기어려다는 리유를 보자가지고 물건드는곳은 대도회처이다▲생상그럴생할이이면을 뛰진다 안저서 죽엄을기다린다는것 보담은 사나죽으나 대도회처로나가서 남사는 겸세에한목끼여보자는심리가 대부분일것이나▲막상 권솔을휘몰고 나선다하자 그들이 도회처에 나와서잇는것은무엇일가▲안해는 남의집식모로 딸자식은 카페 여니면식당녀급으로 사내자식은 공장여니면 남의집 사동으로 뿔뿔이 허터지고 마는것이 그들이흔히 당하는 한토막의 비극이어니가▲생활의밋차에 잇섯나마 가정의단란을바리던것은 한때의꿈이라할가 조반석죽이나마 제고향에 처저잇섯든들 어지경은 아니되엿슬것을 하고 천배번후회가 부질업는 그래서 그들이 최후로 볼잇지는 비명은 구슬프거니와▲그러기때문에 사람은 흙에서 낫거든 흙에서 성장하고 흙에서늙어서 흙으로도라가는것이 순리(順理)인것가타 생각되는것도 또순리인것갓도군!

今日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一五分講演 ▲七時同上 ▲八時趣味講演 李克魯 ▲八時三〇分漫談金元浩 孫一平 ▲八時五〇分 빠이오린 파피아노 ▲九時一〇分(京城)西道歌謠 ▲九時一〇分(平壤)同▲ 一〇時一〇分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大)偉人傳 ▲七時三〇分(東)歌謠 ▲八時(東)合唱보-캘、포어 ▲八時三〇分(城)歌詩 ▲八時四〇分(城)長唄 ▲九時連續라디오小說

天氣豫報

概況 呑港附近의 颱風이本邦의 南海上을 北進하고잇다滿洲와朝鮮의 氣壓의傾斜는 稍緩漫하다 半島는晴曇不定이고 南滿洲는 개이고 其他는흐린편이고 內地는 개인편이고北九州는 비가오고잇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와明日은 개엿다 흐렷다한다

昨日最高 三〇度一
同 最低 二二度一
今朝最低 二〇度九
今日正午 二八度七

土地家屋担保債付

營業項目
土地家屋擔保貸付
建築資金貸付
土地家屋管理分讓
土地家屋賣買紹介
火災保險代理事務

創立 明治二十九年
資本金 壹千四百三
十七萬五千圓
黃金町二丁目五五
東京建物株式
會社京城支店
電話本局 一六八一
營業案內送呈

工業案內

洗濯비누 一本에三種式製法其他 日用品製造法 내용만흔 案內書는 [illegible] 切手 만 送付하
京城府長沙町二九 泰昌工業所

綿大投賣

紡績落綿
製綿原料
蒲團綿製造元

卸商 池漢柱製棉所

仁川府萬石町一七
本店釜山、支店光州
電話長一、四五七番
(價格表請求大歓迎)

山田わか女史と半島婦人の座談會

主婦之友 九月號に發表

山田わか女史와半島一流婦人의劃期的座談會는「主婦之友」九月號에서獨占、特別記事로서發表되엿다。

內地婦人にも大センセイション

朝鮮家庭의 숨김업는 實情이內地一流誌에發表되기는「主婦之友」가 最初、內地婦人間에서도大評判이다。

半島の婦人はぜひ御覽ください

朝鮮의教育과結婚과生活改善問題를解剖한山田わか女史의銳利한批判은全半島婦人이반드시일거야할것이다

金活蘭女史との結婚問答

京城梨花女專副校長金活蘭先生이早婚과結婚難에對하야山田わか女史와懇談、다시두번어들수업는 特別記事

見逃すと大變早く早く!

「主婦之友」九月號는어데서나세기난다 賣盡되기前에一刻이라도速히일거주시오

大奉仕 六十六錢(送料七錢)
東京駿河台(振替一八〇) 主婦之友社

연주창

新發見
効力百中、服用容易、無痛完治

「연주창專門藥」 新藥 淸化丸

藥價 一貳 [illegible]
販賣所 京城藥局

國產サンライズミシ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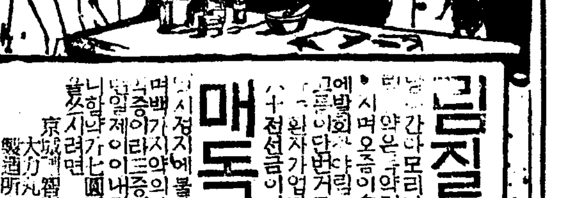
謹啓 益々御清穆하심을 伏望하오며 今般弊店은 業務를 擴張하웁고 府內社稷町으로 工廠을 新築移轉하야 精密한アームベット及新案式脚部其他附屬品一切을 製造하오며 機械에잇서도 一層精密히 工作하얏사오니 倍前御用命하심을伏望

(特許出願中)

コリアミシン製作所
開城府社稷町三二一六
振替京城二六三三一
電話 四〇番

本報全南支社
光州府明治町五丁目(前コルーフ場)
長電話七六七番

食慾素 わかも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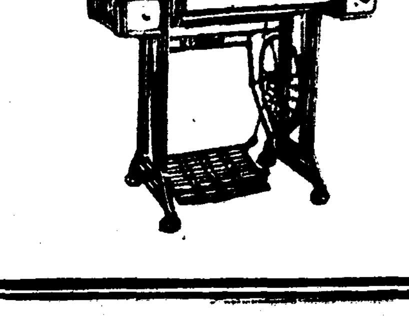
림질?
매독?
京城府智町一五番地
大力丸 製造所 京城藥業社
電光一八〇八番

百發百中아들나는法

姙娠中 딸이
變하야 아들이 됩니다

世上에 無子하신분은 落望하지마시오 科學의 發達로 딸이 變하야 아들이되는 百發百中의 神方이 發明되엿습니다 無子를恨歎하시는 滿天下諸賢은 꼭 試驗하여보시오
希望하시는 분은 左記住所로 三錢切手同封하여 照會하시면 說明書를 無代進呈하겟삼

元山府南山洞六六番地
泰昌號



朝夕生涼!

立秋

健康回復의最好期!

暴暑에 시달닌몸을 補할때는 只今!

生命을빼앗는 大病도 조그마한 虛弱의 틈을타서 드러옵니다 虛弱이 過度하면 百藥이 無効한 法이오니 立秋當節엔 只今부터 곳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더위·땀·衰弱은 早老와疾病의原因

身外無物·健康第一

爲先胃腸과元氣를補하시요

● 누구나 여름철에는 더위로 因하야 胃腸이 弱해지고 따라서 食慾이줄고 消化가 안되고 여위고 元氣 陽氣가 衰退되고 全身이虛弱해집니다

● 여름철에 虛弱해진몸을 그대로두면 당장에는 別일업는것가트나 事實은 身體各部의 抵抗力이 弱해지고 모든 生理機能이衰退되야 不知中肺病、陽氣不足、神經衰弱、체증、貧血症等不治難病에 걸닐뿐아니라 早老하고 短命하게됩니다 그럼으로

● 누구를 勿論하고 여름철에 몸이 虛弱해진분은 于先 百補丸을 服用하여 胃腸과 元氣 陽氣等을든든히 補하서요 千金보다더 貴한 내몸의 無病健康長壽를 爲하야 服藥의 最好機 立秋當節언 只今 곳 百補丸을 服用하기 始作하는것이 무엇보다 第一 急先務입니다

百補丸은 朝鮮人 胃腸과 體質에 잘마즘으로 効力이 洋藥보다 絶對優勝

체증

一時的 鎭壓은 不可하오 百補丸이라야根治됩니다

여름철에 체증 속병으로 飮食消化가안되고 食慾이업다고 함부로 胃散가튼것을 쓰지마서요 소ㅣ다가튼胃散은 그때그때 一時的効果는 잇슬지언정 決局은 소ㅣ다中毒症 習慣性等을 發하야 오히려 胃病이甚해지고 맙니다 그러나百補丸은 原因的으로 脾胃經을 補하므로 不知中체증이 업서지고 消化가 잘되며 食事가倍加됩니다

陽氣

一時的興陽劑는大禁物 百補丸으로根本的補陽

陽氣가 不足한것은 첫재 元氣가 虛한까닭입니다 元氣가 虛한데다가 一時的으로 痲醉的興陽劑가튼것을 쓰는것은 大端히 危險합니다 陽氣不足에도 百補丸으로 陰陽을 雙補해야만 用之不渴의 精力이生합니다

食事倍加·陽氣倍加·百病退治!

補陰補陽 百補丸 不老强精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形容이창백하고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弱하야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以上의 症勢는 早老할症狀이오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싱싱한靑春이되시오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붓습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알지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 淋疾도 消蕩됩니다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少年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어느藥이고 三劑以上共同注文하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獎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有名藥店
五、和信·三越

▲生男生女 ▲天下名藥

부인의

경도부조와 자궁병 냉병 대하증 불임증과 산전산후 거혈부족에 효력 천하제일

月經血色이 조와지고 月經時期가 一定하여지고 赤白帶下와 惡臭가 一掃되고 月經時 腰痛腹痛이 絶對的으로 업서집니다 얼굴이 젊어지고 粉이곱게잘먹습니다

婦人百補丸

京城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 六三二番 六二三番 三三〇番 振替 五番

家庭

공부를잘한다해서 잘되는건아니에요

위인의소년시대가증명하는 작난꾸레기의장내

성적조흔아이와 낙분아이는 어더가다를까

등화를 친할가을이 오고 제이학기도 시작이되여서아이들도 공부에 재미를 부칠때입니다. 아이들에는 성적이조흔 아이도잇고 성적이 납분아이도잇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드님이나따님을둔 어버이는 그저조와서「우리집놈은 재간이잇서」하고 대단히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와반대로 학교성적이조치못한 아이들의 어버이는 자기자식은 장내에 별 볼 희망도업고 아조틀렷다고 그냥내버려두든지 혹은 아이를 무리로 공부를하라고 야단을 치든지 입버릇처럼 늘꾸짓든지해서그만 아이가 기를펴지못하고 비겁하게 자라는것입니다. 이러케되면 참으로 약한편어다불행합니다.

그런데 학교성적이 우등이라고해서 반드시 장내가 밋음직하다든지 성적이 납뿌다고 장내에 전혀 히망이업다고할수는 업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학교성적만 보아가지고는 만족해하거나 낙망을하는것은 넘무빠른집작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자식의 신체급정신의 모든조건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두는것이조습니다.

운동이라고해도 그가운데는 두가지 종류의 아이가 잇습니다.

그하나는 신체도 튼튼하고 두뇌도조흔 아이입니다 집안에서 공부를하라고 성화하지안어도 제절로 술술 쉽게 운동하는아이입니다 이와가튼 아이는 신체와정신이 정말로 건강해서 위험이업시 잘자라나 갑니다

또다른한가지는 신경질로등아입니다 몸은 허약하나 머리는 영리하면서 무엇에나 발끈해서 지기를 실혀합니다 그러데 또 어버이되는이가 다른집아이보다 성적이 조흔데 만족해서 점점더 열심으로 공부를 시켜서 성적이조흔 아이입니다.

이러한 아이는 장내에탈업시 잘버터날가 장내성보다도 대단히 불안스럽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드러서 잘하기는하나 조금만 시험답안가튼것이 틀려도 울고 그것으로 상심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감정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러한아이는 어린애신경쇠 [illegible]나지못하고 점점 모약의경향이잇습니다. 신체가 공부하는 정신적부담에 견듸지 못해 줄어드는편으로 기우러집니다. 이럴때역시 성적만 다투어 공부를 열심하면 청년기에 들어서는조발성천치증이 생깁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귀엽다고하는 아이일수록 아이와가튼 감성을 가질듯르고 어른처럼 조숙해버리기 쉽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아이는품팜하고 얌전하고 성적이조타고 칭찬을하고 부모되는이도 자기집아이는 수재라고 떠받들어 노흐면 아이의 신경쇠약증은 점점더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어디까지나 아이답게 길러야합니다. 넘우얌전한아이는 못까

제 [illegible]거나가지못하고 중도에 부수러지기쉬습니다.

어떠케 성적이조치못한아이는위선공부보다 몸을튼튼히해주는데 첫재로 [illegible]가고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시켜신체를 튼튼히할것입니다.

열살에 신장이 [illegible] 여가서는 되려 까부러드는수가 만흐니 어려서 성적은 웬만치헤도 어련 예답거신체와정신이 함께 자라지안흐면안됩니다.

학교성적이 조치못한 아이가운데도 여러가지가잇습니다. 첫재는 나면서부터머리가나쁜아이 둘재는 아이가 [illegible] 선생에게 미움을바다서 성적이 조치못한아이 셋재는 눈이나귀에 병이잇는아이들입니다.

첫재와가튼아이는 [illegible]면 가정교사를두든지 그밧게 여러가지로 힘을써야겟지만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쁜것은 암만해도 [illegible] 전매독등의 부모의죄가 자손에게미친 경우도 잇스니 아이만 나무랄수도 못됩니다.

셋재경우엔 되도록 속히 의사의진단을 밧고 고처주는것이상책인것은 말할것도 업습니다.

둘재경우의 아이는 작난이 심하고 어른이 손을댈수엇시 날치는 작난꾼이니 자연선생님에게도 미움을바더 성적이조치못한 경우도잇스나 사실이런아이를 잘만지도해노흐면장내성이잇습니다.

따ー윈, 카ー톨기튼 위인도어려서는 말할수업는 작난꾼이여서 학교선생님을 애를먹엿습니다.

이러한아이는 그성미를 잘지도해주고 자기가 특별히 취미잇서하는 방면을 잘[illegible]혀주면 의외로 걸물이되는수도잇습니다

장년기의사람은 낫잠안자도 조와

그시간을운동에쓸일

서늘한 바람이 떠러지니 점심후에 낫잠자기가 대단히 조흔때입니다. 그런데 이낫잠에대해서 건강상 조흐냐 나쁘냐하는 문제는 이론상 대단히 시비가되는데 거기에대한것을 여기에 어야기하겟습니다.

잠이란것은 사람에게 자연으로 오는것으로 잠에의지해서 피로를 회복하고 따라서 일의능률도 생기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해지기쉬운 여름철엔 사람이 낫잠을 자는것은 자연한 요구라고 보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나이에따라 잠자는시간을 보면 다소간 차이가잇습니다.

오, 륙세—십일, 십사시간
팔세—십, 십이시간
십세—십, 십일시간
십오세—팔, 구시간
십팔세—팔, 팔시간반

이만큼한 수면시간이 필요한데 이이상의 나이의사람은 보통 일곱시간반으로 여덜시간자는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드러가 사람이 늙어지면 더구나 잠이업서집니다. 늙을수록 첫새벽에 깨게되니까요.

그러나 작고자라가는 아이들은 정신과 신체의 발육시대라 나먹은사람보다 여러가지 작용이활발함으로 잠도만히 자야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노동을하는사람들은 아모데서라도 낫에 한잠자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장년시대에 가장활동력이 만흔사람은 낫잠을 안자고 그대로지내수잇스면 조흐며 그대신육체적운동, 즉승마, 테니스, 야구, 수영가튼것을해서 밤에 잠을잘자는것이 조흡니다.

또는 예외로써 신경병성체질을가진사람은 밤에 아모래도잠을 잘자지못하니까 낫잠을 조곰식자서 이에 보충하는것이조흡니다.

여름더위에는 화장품도 상해

감별하는법은이래요

화장품가운데 크림종류는 동식물성의 지방이라든지 닭백질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만든는데이런것이 더위가 심한때나 또요즘가튼때 흔히 변질이되기 쉽습니다.

물론 각종류에따라 상는율일수록 이와가튼 상하는일이 덜하지만 방부제(防腐劑)의 여러가지 다른것을 섞거넛는다든지 또는 제조방법이 불충분한 갑싼것은 더위때문에 원료가 분해되고 그러는동안에 지방이산화되고 레몬이나 수세미오이, 수박등의 파실즙을 너흔것, 다시말하면 닭백질이 든것은그것이 썩어서 일종의 미균을생기게하는수가 종종 잇습니다. 지방이 산화해서 강한자극성의 산이생겨잇는것을 해수욕이나 더위에 땀을흘려 상당히거칠어진 얼굴에쓰면 기가막히게 피부를 못쓰게합니다.

그러므로 이화장품의 변질또는 부패여부를 아는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분간해내는데는아래와가튼 세가지가 잇습니다.

(一) 액체가 우에 올라오고 밋바닥에 무엇어 가라안저서 두가지로 난호여잇는것.

(二) 것흐로보아 누러커나또는 자주빗어나 고동색을띄면색이 되여잇는것.

(三) 고약한 냄새가 나게되는경우.

이상세가지의 기미가 보히거든 상한것으로 알고 쓰지말도록합시다.

누기안차게 소곰두는법

흰소곰을 그냥두면 아모래도 습기를먹어서 녹아버립니다. 그것을막기위해선 생쌀 영나문알을 냄비에다 볶가서 소곰그릇속에다 너허두면 습기는 이쌀이 빨리 드리고 소곰은 언제나 보송보송해서 쓰기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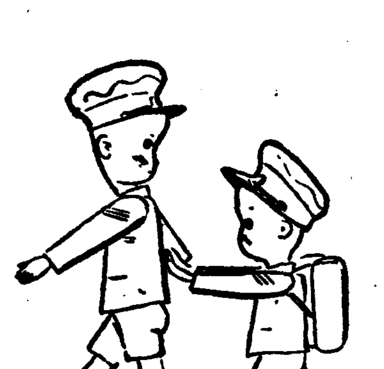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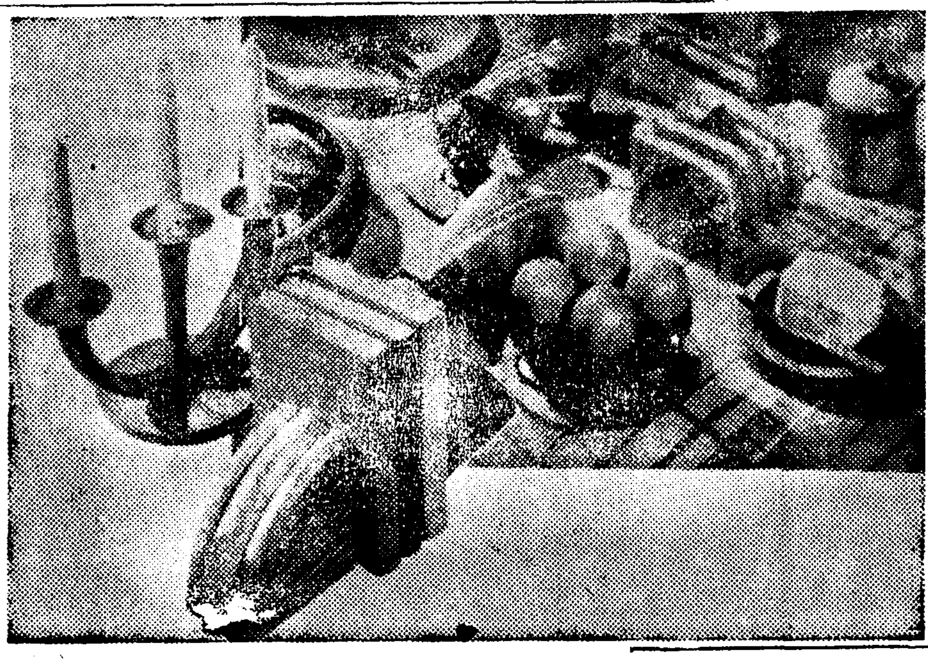
선후를차려

형님 「옛날에나 지금에나 성공 한사람을 보면 모두 어려서 모진마을 울먹고 공부를 열심히 한사람들이다 너는 언제나 훌륭한 사람이되려느냐」

동생 「나도 그러케 되겟지요만 형님이 먼저되세요 그다음엔내가될께」

(경성사람 강성구)





금속대용의 정교한나무그릇

나이푸·스풍·이러한 기구가점직이만히 씨우는오늘날—여기에드는 금속류도 상당히 만흠으로 오래지안어 그대용품이나오게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히는것은 단순히 대용품만되는것이 아니고 한층더 나아가 미술적가치에잇서서 쇠로만든것보다 어상한생명을가진 목제품입니다.

설탕그릇, 소금, 호초, 땅칩개, 마마레—드, 젤병, 빠터그릇, 마자그릇, 소곰자루, 남킨끼우는고리, 촛대스탄—드이러케 무엇이나 나무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어느것이나 다어룽한근대미를가저옵니다.

재료는 일반적으로 참나무, 호도나무, 뽕나무, 감나무, 등푸상은자단(紫檀)흑단등이씨웁니다.

어느것이나 질이단단하고 윤택이잇고 옛날에 칠기보다도좀더다른 의미로 아름답고 멋드러진것입니다.

요즘엔 아메리카나 영국가튼데서도 특히 멋을부리고 풍류적인 사람은 이와가튼 나무그릇이 환영된답니다. 아프로 칠신·더불라운 미술이 어련한 그릇들우에 어른거려질것이다.

전염병과 뒤지

부드러운조히일수록 비위생적이에요

지푸쓰, 적리등의 전염병은대개는 뒤본것에서 균이전염되는데 어린애에 걸리지안키 위해선 음식물의 소독은물론 변소하수도의소독, 살충등의 예방법은 엄밀히 비교적 편집하고주의하는바이지만 제일중요한 역할을하는 한가지를 어젓습니다 그것은 뒤지올시다.

요지음은 웬만치 모양내는사람은 의례 뒤지를 지리가미라해서 얇은것을 쓰는데 이것이원우 엷고보니 자연 쓰고난다음우리손엔 균이새여나와 뭇게되는것입니다.

종이가 조흐면 조흘수록엷어서 어러케되기가 쉽습니다. 손에묻은균은 자연이 옷에나음식그릇에 뭇는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문지를 쓰는사람은 상등지리가미쓰는 사람보다는 몇이안전한데 신문지도 한겹은 재미적고 두겹으로해서쓰면 균이새염여가 업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엷은상등종이는 한꺼번에 칠팔매쓰지안흐면 균을막을길이업스니 아무래도위험성이 만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변소나 그밧게 사람의 출입이잣은 변소에 드러갓다 나온후에는 반드시 손을깨끗이 씻슬것입니다.

그리고 변소는 사용해 한번씩 소독약을 뿌리고 손씻는데도 손독약을 조금 타노코 손끗틀 소독하면 완전합니다. 학교, 회사, 극장, 상점가튼데는 특히 소독액을 준비해두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부인네들이 부엌에서 입는 앞치마가튼것을 그대로입고 변소엘 드나드는것은 대단히 불결한것입니다. 부엌에서쓰는것은 늘 다른것과 구별하야 특별히 정결케 할것입니다.

애기를업어기르면 참말로다리가휠까

우리네 어머니들은 일은 밧부고 손은적고할때는 애기를 업고일을합니다.

그런데 이애기를 업는것이위생상으로 나뿐지 어떤지한번생각해봄만한 일입니다. 애기를 그냥업어준다든지 아이들태우는 수레에 태여가지고 끄러준다든지하는것보다 업어주는것이 조금위생에 덜조키는합니다. 때마다 자라나는 애기를 물부자연스런 자세로 등에다 짝동여매여업는것이니까 위생에 그다지 조홀것이업지만 그러타고굿슨 해독을 끼치도록 나뿐것도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히업으면 다리가 굽어든다고하는데 그건 공연한 말입니다. 아무리어린아이들의 뼈가연하다하기로 그러케쉽게 휘여틀리는일은업습니다.

그러므로 애기들을 업어주되 넘우 숨이갑부도록동여매다든지 업히여서 잡아틀러 목이뒤로 잿처진다든지 모자가 버서진는데 뜨거운볏에 그냥노라다닌다든지 이런것은주의해야합니다. 그밧게는 업어주는것이그다지 해될것은 업습니다.

長篇小說 愚氓 【119】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세가지일 (2)

홍서방은 면도를 다 하고나자 하생을 세면대 아프로 어끌어다 머리를 갈어주며 다시 지비산속의 노파가 하더라는말을 생각하며 본다 아니 장씨가 그 노파에게함하여

「대체 딸년을 뉘집으루 시집을보내야 하나요?」

하고 물으니까 그는

「차차 알때가 오지. 새우재서 그금년밥 맛난이가 지시하는대로만 하오. 지시하는대로만하면 자연히 만사가 형통이요」

그러케 일러주더라 하지안나? 그러니 어제는 물론 새우재서 맛난 젊은이가 지시하는대로 따라 하는수 밧게는 업는게지만

(참 그이는 그뒤로 도모지아무 소식이 업스니 웬일인고? 한 사날 엇다가 차저가겟다고 말한게 그게 지난달 그믐날, 오늘이 초닷세니까그러니 쯤 닷세가 되지 안나?……)

사첨집 아들이 세수마저 하고 도라간 뒤에도, 홍서방은혼자 그 생각을 하며,

(역시 그이가 우리 집을올라그랫, 오고시퍼도 못오는게아닌가?……)

어째 자기는 열일 제처노코라도, 그이와 헤여지기전에, 면소 마조면쩍 조일이밤면이라고 한마디 일러 주지를 못하엿던고? —몃번이던 그런것을 뉘우치며 차차 문을 닷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차리고 잇느라니까, 문득 어두운 바깟거리에 누군지 이편으로 걸어오는듯시푼 발소리가 들린다.

홍서방은 마루바닥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비로 쓸다 말고 무심히 고개를 들어 열어제친 창밀어로 그편을 보앗다

그리고 그는 눈을 둥그러그러케 뜨고, 다음에 벗자루를 든채 두어걸음 문아프로 다가갓다.

때마침에 배고의, 챙넓은 밀짚병거저에 겹전고무신을 신은 그 젊은이는, 바루 닷세전, 세우재에서 맛낫던 백백교 교도가 틀림 업섯든 까닭이다.

「아, ……」

「이제 오시나요?」—소리를놓서방이 미처 뭘라이도 업게스럭, 젊은이는 휘휘 샤면을살피본 다음에 제법 어밧소안으로 발을 들여 노한다.

「어데서 어러케 굿게 오시나요?」

「처음에는 죽처럼 허락을 안하여주십띄다. 피신궁으로 거느리시고 들어가실 인원수가 꽉 차서, 도무지 다시는 단한명이라도신입교도를 바더드릴수가 업는 형편이라……, 그래도 내가 노형 내외분이 지비산에 삼칠일정성스런 마음으로 옥수 바친 말슴을재삼 여쭈엇더니, 그도 모두 무슨 기픈 인연이려라 하시고 마침내 허락어나려신다다.」

「네ー。그저 저이들로 하여선 생캐서 수고 만히 하섯습니다.」

「내 수고랄께 엇겟소?…사실은 알고 보니까 일이란공교롭습듸다. 나는 또홍히 모르고 엇섯지만 대원님께서 연소하실때 하루 저녁산숙에서 백일기도를 드리신 일이잇스시다는구료. 그래 내가 그굴속에 어상한 노파가잇서 그사람이 일러주어서 우리가새우재서 맛낫단 말슴을 햇더니 퍽 신기해 하시며 그게 심상치안흔 인연이라고—그래 노형이교도될것을 허락하십띄다. 그러치 안허더면내가 암만울겻슬 드려던 소용어 엇겟소?」

「네ー 네ー」

기게 놀리던 손을 멈추고 홍서방은 체경속의 젊은이에게다대고 몃번이나 굽실 굽실 절을 한다. 그 절을 가만히 돈눈으로 바라보며 젊은이는 다시 입을 열엇다.

「…………」

젊은이는 대답업시 말업시거지를 버서 못에다 걸고, 그대로 구석진 경상으로 가서그우에가 업어주저 안는다. 그리고 홍서방쪽은 보지도 안코가장사무적으로 한마디하엿다.

「어데 갈데가 잇서 그러니깟 좀 꺼저 주슈.」

홍서방은 잠깐 어리둥절하여 머엉하니 서잇섯스나, 아모 영문도 모르는채 그래도 그의아페다 보재기를 틀러주고 다음에 기게를 뭇고 그의 뒤에가 섯다.

「머리 짝그면서, 우리, 애기하시다.」

젊은이는 책상속을 뭇어다보며, 가만히 한마디 하엿다.

「네. —」

홍서방은 기게를 놀리며 마음은 다시 업는 진장을 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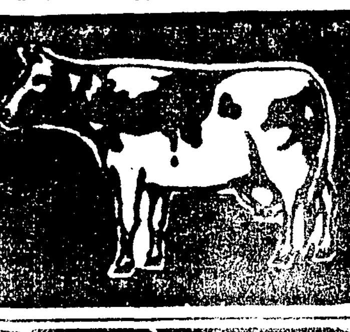
「그간, 내 서울 갓다왓소 본부로 들어가서 노형 말슴을 대원님께 여쭈엇소.」

「네ー. 감사하옵니다.」

H.K10

夏 볏해거른살결을거칠잔코 健康케기룬다—

여름은항히살결을위해愛用해주십시요!



牛乳石鹼

僅かな御奮發でお子樣の教育が易々出來る『講談社の繪本』

……これをお與へになるのは、この際何よりの得策

お子樣の教育は、長期戰下銃後第一の務です。子供が良くなれば、家庭は圓滿、必ず大繁榮、お國は益々隆盛になります。どうぞ諸先生が極力御推奬になる「講談社の繪本」をお與へになつて立派に賢くお育て下さい。僅か、四、五十錢の投資で、お子樣がメキメキ良くなり、將來千金萬金も及ばぬ實を結びます。これ程安價で効果的な教育費は又とありません。

東京市永田小學校校長 桝井辰次郎先生曰く

子供は無精に繪本などを喜びますから、この心理を大いに利用して正しく育てゝ行きたいものです。然しこれはその繪本が餘程大切で、子供を愛する親心、教育家の氣持で作られてゐる「講談社の繪本」は理想的であります。

子供が良くなる 講談社の繪本

男の子も、女の子も、大喜び！贈物にはこれが一番

正しき愛で子供を伸ばせ!!

新發賣の四册！

講談社の繪本 偉くなる子供 50せん
特別讀物 豪勇美談
感心な子供の手本や、偉い人の子供時代の話などを澤山集めた繪本です。これを見るお子樣は、知らずくよい事を覺えて、將來出世なさいます。

講談社の繪本 眞田幸村 50せん
特別讀物 名人達人腕くらべ
智惠があつて、强くて然も忠孝兩道を全うした名將幸村の面白いく一代繪卷です。面白さに大熱狂しながら、幼い魂に忠孝の大精神が植ばれます。

講談社の繪本 文福茶釜とこぶとり 50せん
特別讀物 教訓繪ばなし
昔から子供に親しまれてゐる名高い昔噺を、とても面白く、美しく描いた繪本です。深切、思ひやり、正直などの大切さが、しみじみとわかります。

講談社の繪本 漫畫と愛國美談 50せん
讀物 面白くて上品で、教育的だと、講談社の漫畫繪本は、いよく大評判です。お子樣方は大喜びです。「愛國美談」にはお國の爲に、命がけで戰つた勇士の物語が澤山集めてあります。

陸軍大將 安保清種閣下御推奬！

既刊七十九册！賣行よく大激增!!

「講談社の繪本」はこの他七十九部出てゐます。どれも美しくて面白くて爲になる。家庭的な繪本です。各方面から熱心に推奬！今や子供のをる所講談社の繪本を見ない所はないと云ふ大へんな評判です。まだお與へになられぬ方がありましたら、大至急お求め下さい。

◎全國信用ある書店販賣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振替東京三○)發行

八月三十日早朝封切大公開！ 大衆料金 二十錢 十錢 昭和超特作全發聲日本版！ 조ー지아ー센보ー氏監督作品！ 麗人遁走記

新版 鐵人都 (解說 付)

新版 香土 (解說 付)

支那事變戰捷ニュース 東日·大每ニュース班特作

光化門 二九五 優美館

三十一日ヨリ 九月二日マデ 四日間
寶塚·パテー ニュース
水島道太郎 主演 母の瞳
世界的名作小說の映畫化
イヴォンヌ・プランタン 主演 椿姫
百萬石れ行狀
毎日晝夜三回興行
中央館

松竹キネマ
8/30日より9/4日まで上映時間表

ニユース	12·05—12·22	3·23—3·40	7·00—7·17
戀愛合戰	12·25— 1·52	3·43—5·10	7·20—8·47
ニユース	1·55— 2·12	5·15—5·32	8·52—9·09
宵待草	11·00—12·01 2·17— 3·18	5·35—6·36	9·12 10·13

次週松竹花ある氷河メトロ春に背くもの實演リズム合戰

明治座

劇團靑春座公演 ▲八月廿七日밤부터 李瑞求 作 『사라진·무지개』 六幕三場
運命은두男子로하여금한女子를사랑하게하엿다. 목숨을바처도아깝지안흐리만치…그러나鐵血男兒의理智와義理는…完全히運命을開拓하엿다 妖艶한무지개가사라지는곳에眞正한光明이비치고잇다. 보라! 正義의勝利를!
南宮春 作 喜劇 『月給日異變』 一幕
▲特別豫告 九月三、四、五日 (三日間晝夜二回上映) 納涼名畫大會…(第一週) 於府民館 料金十錢均一
ギャバンの…『熱風』 ボアイエの…『かりそめの幸福』 P.C.L.超特作…「良人の貞操」
◇부디오시기만기다리고잇습니다! (일본명화상영)
東洋劇場

八月二十九日より三十一日まで 五○ヒット

大朝ニュース	11·00	2·45	6·35
其の夜の眞心	11·10	2·55	6·45
大每ニュース	12·55	4·30	8·25
間奏樂	12·55	4·40	8·35

(二) コロムビア映畫 ワーナー・バクスター マーナ・ロイ 主演
(四) コロムビア映畫 グレース・ムーア ゲーリー・グラント 主演
早朝割引 午前中御入場の方は三十錢均一割引致します 冷房完備
若草劇場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三日……(三)
竹露茶의本源地
李殷相

坐禪者는 잣칸아자 演古德을 여 아리며 다리를 쉬노라니 主僧이 문득 茶器를 들고 와喫茶를 勸하기로 나는 市中의 苦茶에도 맛을들친 茶黨이라 놀란 듯 바다드니 香氣가 먼저 사람을 醉케한다. 有名한 智異山의 竹露茶요 衆하야 晉州의 勸茶라 一喫을어찌 辭讓하랴. 新羅史에 적히바대로 興德

王三年(八二八)에 入唐使大廉이 茶種을 歸入하야 王命으로 智異山에 심어 朝鮮茶史의 첫 페지를 이룬것이 우리는 所謂茶分의 으로 어디에와 이山所産의 竹露茶를 마신다는것이 어떠케나 僥倖한지 모르겟다. 더구나 이山에서도 七佛庵에서, 七佛庵에서도 禪房에서 一喫하는 맛이란 어느곳에서 어떠한 高價茶를 마신다 더 讓하고 맛잇는것임을 나로서는 깨닷지 안흘수가 업는것이다. 草衣禪師의 東茶頌註에 「智異山花開洞, 茶樹羅生四五十里, 東土茶田之廣, 料無過此者. 洞有玉浮臺, 臺下有七佛禪院, 坐禪者常取老葉…」

이라하엿스니, 이中에서도 이禪院 近處가 第一多産이오, 이곳이 또 本源地라 할것이다. 雙磎寺 茶는 맛으로 勝하고, 華嚴寺 茶는 香으로 勝하다 하지마는 東茶는 이 竹露茶를 하엿다 함이 草衣의 말이어니와 그의 華和山 禪道人 時中에 말한 「閼伽有淸淨妙源 妙源無著波羅蜜」이란 그대로 「閼伽(茶의梵語)」 一碗으로써 無所執着의 至境을 잡기니와 맛보자하며 茶碗을 들고 坐禪一首를 吟한다. 맑으면 어슴이며 竹露茶味 따라두고 바위길 혹아올라

玉泉水 떠오르니
老僧의 三昧手로
달이엿고 너희엿네
저마다 眞香소리
숲속으로 떨어지네
靑雲들로 걸쳐내어
茶碗에 부어놀고
謁도 조용할사
[illegible]
따르나니 琉璃水라
길가는 먼나그네
마시라 勸하시네
잔들고 입안으로 이어노니
七佛禪院竹露茶 波羅蜜.

一碗新茶로 世味를 다시맛고 點心이 돌수안을 불라서, 나는 다시 庵의 西窓에잇는 七佛庵有緣諸佛中에서도 史上의 人物이 되랄 浮休善修堂의 浮屠를 차젓다. 그는 이곳에서 瑞巖한 西山休靜禪師의 法弟되는분으로 나는 일즉 白谷處能의 弘覺登階碑銘을 읽어, 浮休善修의 一生事蹟을 알고, 高弟覺性이 지은 그의 行狀과 浮休堂集을 뒤저 그의 [illegible]

[illegible] 우에 그無名의 [illegible] 제 어七佛庵이와 [illegible] 그의 浮休堂을 맛나매 深遠한 印象을 밧는것이다. 그는 光海年間의 人으로 어려서부터 어山으로들어와 [illegible] 明에게서 禪海하고 [illegible] 을 차저 法을배우고 [illegible] 엡도 道通한것이엇다. 흐린 德裕山에서 千餘의 兵을 치르고, 흐린 智異山에서 狂僧의 誣訴를 입어 [illegible] 치고, 때로는 伽倻山을 [illegible] 며 때로는 曹溪山을 [illegible] 마치내 이七佛庵에와서 [illegible] 가 七十三의 晩年을 여기 [illegible] 그는 다만 胸次淸白 [illegible] 으로 지나던것이니 여기에 詩 讀하기되

浮休一老翁 [illegible]
日暮芳林風 夜深新山月
便息絶縈謀 心灰無所別
謝世入深居 何人寄問說
吾法有自來 一言眞殺活

이라하엿다 (浮休堂集)

[illegible] 가버이하고 [illegible] 梨花 [illegible] 死에 [illegible] 普照은 [illegible] 西山禪師도浮休子를 노래하되 [illegible] 이라하엿거니와, 果然그爲人의 淸高함을 이로써도 알것이다. 山寮下에 收心靜坐하야 道에어디잇슴을 생각하다, 求道할것도아니요, 求法할것도아니요, 오직 내게잇슴을 喝破한이라, 古禪의 信步行을 늣거이 追慕하지안흘수업다.

풀속에 무친길이
어드러로 뚤렷는고
谿頭 狂客이
길찻기 어려워라
헤매어 이山속이리니
발따라만 가오리라.

學藝

朝鮮文學精神檢察 ⑦
世界觀、文學、生活的現實
安含光

한테 우리는 여기에서 『絕對理念의 論理』를 말하는 헤-겔哲學에 反旗를고나선 새로운 哲學原理에 依하야, 認識의 열쇠는 認識 그自體가아니라 實踐이란 意味에서——

現實 에 對한 認識의 問題는, 現實에 對한, 實踐의 問題로, 을 깨닷게된다. 마가는것이 아닐수업다는 것을 어리하야 그는 作家의 實踐問題가 아닐수업게된다. 하나 생각할것은, 往年에 잇서서와가튼 直線的인 意味에서 또는 그러한 角度에서 現今作家에게 그를 要請할수는 업다는 點이다. 現今의作家(廣汎한 意味에서의)들은 許多한東洋神話의英雄도아니며 『이리앗드』의 아키류-스도 아니라는點을 自認할必要가잇다. 이말은 무슨, 往年에잇서 下向的實踐을 論究하든 인테리들이, 東洋神話의英雄이란든가 또는 『이리앗드』의 아키류-스흉내를내엿다는 意味에서가 아니라 오직 社會的 情勢의變遷을 率直히 自認하고 그事實의 正確한 認識을 土臺로하야, 僅少하면 僅少한대로나마 罪되지안는 『行動의 世界』를 가질것에 對한 要請에서 하는말이다. 其實 往年에잇서서는 『知識人』인것을 오히려 恥辱으로 생각하지안흘수업스리만치 澎湃한 社會的情勢下에서 知識人의生活이 보람 노픈

段階 에로 揚棄되어지고 새로운 歷史的局面에 對한 渴望을 어느 程度까지 具象化해든바이엇다고 생각되어진다. 하나 그와同時에 知識人的生活에 對한 그當時의 [illegible]것은 作家自身의 生活的辯證法에 依해서가아니라 그와는反對로 [illegible]的이데오르기-의 辯證法에 依한 行使에 不過하엿기 때문에 後日에 남긴 遺物은 오직 素朴主義的 傾向과 그로부터 緣由된 [illegible]의 서글픈 [illegible]이엇다는것을 또한 생각하지안흘수는업다. 이러한事態는 마침내 藝術의 世界에 對하야 焦燥한 남어지 作家自身의 生活的現實에 對하야 하나의 虛勢的인 彩色生活과 同時에 浪漫的인 歪曲을 招來함에 이르럿다. 하나 어떠대를 莫論하고 『事實』을 無視한 『眞理』의 探究란것을 期待할수는 업다. 어떤 意味에 잇서 現今의 作家들은 위선 自身의 生活的現實에 對한 認識과 認識——

率直 實踐의 態度로부터 出發하야 血肉化된 主體的 認識을갓고 現實의 價値를 可及的再現할수잇는 새로운世界의 依據處를 發掘해나가야할 時期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잇서야할 意慾의 世界 또는 잇슬수잇는 可能의 世界와 作家의生活的 現實파사이에 어떤 障礙를 設置하는거와갓흔 態度를 意味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라고하는것은 作家의 生活的 現實이라고하는것은 [illegible]것이아니라 그와 反對로 언제나 流動 發展하는것이며 作家는 모름직이 그의 發展을 具體相에잇서서 合理的으로 把握해나가야할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야 美하든, 醜하든, 또는 善하든 惡하든 生活的現實에 굿게 발을부치고 綿密히도 라보고——좋터러 그와 合理的인 把握의 態度는 生活的現實에 對한 結抗의 態度이라 同時에 世界認識에 對한 主體化의 過程이기도하다. 그리고 여現實에잇서서의 作家의 主體的眞理는 客觀的眞理와의 合一을 志向하는것이 아닐수업다는것도 容易히 理解할수잇는 事態다. 그러기때문에 어느

文學 을 專혀 一身上의問題에로 돌려버리는 心理主義的 主體論파, 소매를 날오는것이 아닐수업게된다. 그와同時에 書齋主義的 世界觀의 說敎란든가, 또는 虛勢的 實踐論의 제스추어와도 소매를 날오는바 同時에 歷史的推進力에 作用하는바 藝術家의 길이란, 어떤 特定의 길에만 限한것도 아니며 또는 藝術의 世界란 가장 屈伸性잇는 個性的 世界이거도 하다는것을 깨닷는 瞬間의 世界를 갓는것을 意味한다. 이는 一切의 實證主義的 遺制에서 解放되어지는 世界와 파 同時에 宣傳文이란든가 三面記事的 報告文이란든가 生活描寫의文章的細工에서 解放하야 眞實한 藝術을 創作할수잇는世界이기도하다. 實로 오늘이라는 오늘은, 啓蒙的 啓蒙파 文學的 啓蒙이 다른거와同樣으로 政治的指導性파 文學的指導性이 또한 다르다는 原則的인 眞理를 現實面에서 屈伸性잇게 具體化해나가야할 時期이라고 생각한다.

附記, 나는 여기에서 「그러라면 레알리즘의將來는 어떠케될것이냐」? 하는곳에로 推論할 [illegible]에依하야 그로써 結論的인 [illegible] 算이엇스나 紙面이너무 길어젓스므로 그에關하야는 後機로미루지안흘수업게되엿다는것을 말해둔다 八月十二日

知性의意味限定
헤-겔의歷史哲學에비추어
⑨ 金後善

우리는 知識階級을 사랑하기보담 文化를 사랑하여 歷史를 사랑한다. 文化를 사랑하는 精神은 늘 文化的 主體의 積極的 行動性 積極的 協力을 要求하여야 한다. 文化의 主體는 優越한 意味에서 知識人이 아니면안된다. 知識人의 隱退, 懸職, 軟弱, 頹廢, 無關心, 諦觀에서 우리는 아무文化創造的 氣槪를 發見할수업다. 아무 文化建設의 精神을 차즐수업다.

그러면 우리가 文化的 良心과 意欲미러서 知識階級에게要求해야할것은 무엇인냐? 于先 知識階級은 現實逃避를 하여서는안된다. 知識階級은 歷史的 身體로서의 歷史的現實을 自己의身體로서 積極的으로 引受하야 거기로積極的으로들어가지안어서는안된다. 貴재로는 歷史的理念을 自己의精神으로서 세우며 그것을 [illegible]

[illegible] 自己의 [illegible] 段階에 잇서서 [illegible] (歷史的理念)가 具體的으로무엇인냐하는것은 問題이다. 어 指導原理의 實質에는 今日的段階인 世界史的 方向에 對한充分한 哲學乃至科學的 研究를 要할것이다. 吾人은 여러가지 意味와 事情에서 다만本質論에 끄치기로 한다.

이때 우리는 多少抽象的이나마 다음과가티 論하겟다. 單純한 身體만사랑하여도 안되고 單純히 精神만사랑하여도안된다. 兩者를 同時에 積極的으로 사랑하야統一시켜야한다. 이러한 知識階級의積極性이업고는 아무 歷史的文化도 生産되지 못할것이다. 身體와精神을 積極的으로 사랑하고야만 生命을 創造할수잇슬것이다. 愛는 愛의對象을 다만 觀照(靜觀)해서는안된다. 抱擁, 接吻은 勿論愛의 一步前進이기는하나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아직 새生命을 엇지 못할것이다.

사랑의 相對者의 身體를 自己의身體로서 引受하고 나아가서 自己의 精神을 誠實히 아낌업시 그에注入하야 身體와精神의完全한 合一에 일으러서야만 새生命을어들수잇슬것이다. 眞理는 文化的行爲에 잇서서 더욱그러하다. 文化的行爲는 새生命에對한 情熱을가저야한다. 이런情熱은 무엇보담도 身體와精神에對한 精力的사람으로부터 出發한다. 肺病患者, 癩病患者는 自己身體를 사랑치안흘리라. 그러나이것은 事實이속 그가 健全한身體를 너무나 要求하는 反證이 된다. 健全한 身體와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生命을 要求하는누구던지 바라는바이다. 이것은平凡한 眞理다. 그런데 악착하게도 人間의 身體는 有限한것이다. 有限하기때문에 病잇는것이 [illegible]

[illegible] 有限性은 人間에게 「悲劇」이다. 人間은 이「悲劇」을 엇기爲하야 여러가지 方法을 探求한다. 그러하야 人間에게 [illegible]된 「技巧」(바스칼)가 [illegible] 無關心이다. 어떠한 技巧에依하야 그네들은 多少 [illegible] 잇슬이라. 그러나 身體의 不健全, 有限性은 그들人間에게는 最後의 [illegible]이요 [illegible] 現實이며 [illegible] 수업는 宿命이다. 그러기때문에 자리리 처음부터 身體의 不健全條件을 自己의 [illegible] 것으로 正面으로 [illegible]하며 可能한 最善의施策, [illegible] 方法에依하야 새로운身體를 [illegible]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生命의 [illegible]을 [illegible]하여야한다. 歷史的現實이란 歷史的主體, 文化人 即知識人의 身體이다. 어 身體 이 現實이 비록 [illegible]

[illegible] 여기서 우리에게 [illegible] 知識階級은自己 [illegible] 明하다고보다. 그러나 그들의 [illegible] 吾人의見解에依하면 [illegible] 己形成업는곳에는 [illegible] 도업다. 우리는現實逃避, 隱退, [illegible] 서야 文化創造업는곳에 「文化創造」 [illegible] 形成을 보지못한다. 그러므로 요새 知識階級의 現實逃避, 懸職, 諦觀에서 그들의 아모 [illegible] 見할수업다. 어것은 [illegible] 여요 [illegible] 明이다. 그들은 [illegible] 實(身體)을 [illegible] 私人的 主知와 感傷的 [illegible]에빠젓다.

漢詩

題 梧桐
押 陽
桐岡考選

佳作之三
京城府新設町一三一番地一五
尹惠炳

擇地特生金井陽
通心圓體氣淸涼
雨疎能奏琴聲雅
夜靜堪聽露滴香
一葉還羞牛女淚
老枝猶肯鳳凰翔
般般明月懷中照
眞趣昔年誰解詳

砂丘夜趣
(夢金浦素描)(一)
林學洙

「지금은 밤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때 夢金浦 어시여기 왓섯습니다. 처음은 곳을 밤에 보는것도 또한 아름다운일입니다. 夢金 山파 西面기슭파 내앞바다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수가 업스나 등뒤에 조각달이 그 부드러운입김을 千갈래 萬갈래로 가득 뿜어 나부끼게 희미히 눈아페 떠오르는 景은 이와연 꿈입니다.

『砂丘를 넘고 또 砂丘를넘어 나는 바다가 보이는곳에 안저섯습니다. 발밋에는 한쌍의 한쌍 나직한 목소리로 웃고 속사이든 사람들도 이제는 다도라갓습니다.

『문득 北쪽 바다 넘어서 무엇이 번쩍합니다 또 번쩍합니다 하도 멀고 멀어 海上을, 미끄러저 도라가는 燈臺도 보이지 안습니다 椒島燈臺래요 저 九月山허리가 버더 뚝 떠러저 西海에 한 섬暗을 이룬 椒島가지는 여기서 百里, 거기서 또 百餘里 바른편으로 굽어들면 遠近海洋을 두루 航行하는 大小船舶이 가마귀떼처럼 모여들고 고동을 부는 저 鎭南浦래요 港口! 내 만일그 한船室에 드러 窓으로 점점 사라지는 검은 埠頭를 내다보며 미러치는 물결에 몸을흔들려 西으로… 西으로… 黃海 한가운대 떠실 뜨다면 어떠할까요? 지금의 나의 心境으로는 그러한 航海가 오히려알마즐것도 갓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港口는에서멀고 좋은 커젓다 또 꺼집니다! 燈臺가 이쪽을 보고바짝할때 내가슴도 바짝하고 希望에 넘첫다가 燈臺가 저쪽으로고개를돌려 꺼저버릴제 내가슴은또다시 어두어집니다.

『얼골을 돌리면 내가 안진 砂丘의 등뒤에서 부터 비롯한검은 山이 아득히 외편바다가운대로 다리를 내던지고 怪物처럼 업디엿습니다. 달빗에보아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콱드러박혀 險하고 무서웁습니다. 이것이 長山串. 이렇게 내민 岬島가 갑작히 急流를 막고 움크려, 옷속소는 潮水 바위가 눈홀겨 멀리 黃海를 睥睨하는 곳이저 시퍼런 물살이 비빙 도라 한번 꺼꾸드러가면 빠져나올수업다는 天下에도 難航의地, 萬古孝女沈淸이 供養米 三百石에 팔려 풍덩실 몸을던진 臨塘水래요. 얼마前에도 여기서 몃千噸의 汽船이 沈沒하얏답니다. 그 長山串 南편 기슭이 바로 九味浦, 거기서 또 가면 海州에 이릅니다.

『밤이 깁헛습니다. 四方은퍽도 고요합니다. 이따금 바다소리에섞겨 여기저기 모래벌 풀속에서 우는 개고리소리가 들려올뿐입니다.

『혼자서 都會를 빠저나 여기 온 나는무엇을 생각하며 이러케안저잇슬까요? 꿈이오 갑니다 복잡한 여러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달고 오갑니다 昨年——내가 눈어 날리나 落葉이 구으나 밤마다 날마다 술과 山을 건일 드릴을 아시겟지요. 나는정말 자정이되도록 기맥힌지 어떠튼지매일밤 扶山洞집 다리에걸안고 彩霞洞길을 걸엇섯습니다 세끼의 食事보다도 睡眠보다도 빼놀수 업는 나의 日課엿습니다. 그런데 今年 드러서는 한번도 가지를 안엇습니다. 몸도 疲勞하거니와그러케 건일 精神도 되지안엇습니다. 처마끗에 달이 밝으면 일부러 外面을 하얏습니다. 이제 오늘밤은 저달이 지도록 여기 이러케 안저잇고십습니다.

『이 다리에 毛氈보다도 더 부드러운 흰 모래의 感觸을 즐기며——. 하도께끗해 두손으로 덥숙 움켜쥐면 어느새엷은 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버리고야, 손에는 아모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모리 꼭잡으라고애를 써도 모래는 어느새 나에게서 빠저나가버리고맙니다.

新小說連載

女流短篇小說은 讀者여러분의絶大한 稱讚미테서 張德祚氏의 『閑夜月』 十五回로 끄틀마치게되엿다. 朝夕으로 서늘한바람이 불기시작하고 밤이 실오리만치 길어지면 우리는 끗업는讀書의慾望을 누를수가업게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讀書의慾望을 가장 아름답고 재미잇게채우기위해서 어 女流短篇이 끗나는대로 곳 뒤이어 다음과가튼네분의 新人短篇을 連載하기로하엿다. 우리文壇에서 新人優待의외우침은 노팟스나 아직 한번도實際로 그네들의 進路를 열어주고 精進을 勸勉한적이업섯다. 그럼으로 이번連載는 정말 新人에게 그나아갈 大道로 열어주는것이며 또한 이번에 執筆하는 이네분은 數多한 우리新人들中에서도 골르고 골른 精金美玉이라그衝天의氣魄과 淸新한筆致가 반드시 讀者의머리에새로운 小說認識을 樹立하리라고밋는바이다. 더구나 木朗崔根培畵伯의 挿畵를 꼭지은것은 어새로운小說을 더한층 빗나게할것이다.

一 『夜寒記』 許俊作
一 『이랑이』 朴魯甲作
二 題未定 金東里作
二 題未定 崔明翊作

挿畵 崔根培畵伯

朝鮮日報社學藝部

女流短篇 閑夜月 (十五)
張德祚作 崔根培畵

며주 연산을 리별하지 벌서두달 그지루한 두달동안을 신씨는 그보이지안는이를 향하여 엽엣사람에게 이야이하듯 넘두리하고 [illegible] 신씨는 어느새이에 저편 상이 들어와 엇는것도 모른고 탄식하엿다. 엣날 왕비로 엇슬때 [illegible]

한것이 명년이지 알수업섯다. 입동도 벌서 지나고 날은점점 추워오는데 교동안치소는 얼마나 춥고외로운지. 새로들신관전 신씨(愼氏)께서 메비를가엽다고 물려부내주시는 궁녀의 전갈을 들으면 그곳은 황해고도(黃海孤島)의 한구퉁이로 망망한 모래파 흐각한 사위뿐이라 한다 안치소는 바카울타리가 촘고덥아서 햇볏을 볼수업고 그저엽으로 조고만문이잇서 음식만통한다하지않드냐. 그모양이 하도 참혹하고 기맥혀 두견한 배거장(蔣去卿)심순경(沈順卿)이까지 낯을돌렷다하는것을………。

『그러한곳에도 겨울은 왓슬것이 눈이 나리고 어름이 얼고 아—

수라사상을 상상도 할수업을만큼 초라하고 조고만나무소반을 바리보며 그는다시 안치소의부군(夫君)을 생각한다.

『얼마나 내생각이 나실까 나만이 당신마음을 알고잇거니』

신씨의목메여 중얼거리는 소리에

『네?』

하고 장지밧게서 퇴ㅅ상을기다리든 약씨가 응하엿다 몽서나인 양씨는 끈전이 폐위서이될때 자청하여 따라나온 노궁녀다

『저녁지지가 닭지안습니까 또 대전마마 생각이 납시는가봅지요』

『그들은 어두도 못지안는곳이면 서로 대전마마니 끈전마마니 동

[illegible] 『거다가 이제 [illegible] 그것이 계셧스나 [illegible]』 헤하는 궁녀에게 『내가 언제는 [illegible] 대전마마께오서는 그 [illegible] 따로곳에서 [illegible] 한 수라를 [illegible] 것을』

『굼세하시다』

하고 양씨는 무엇을 생각하는듯하드니

『불편하시옵기야 [illegible] 사오며 [illegible]만 그래도 모시는 내인들도잇나니 [illegible] 한옵니다 [illegible] 모시고잇서 시중을 [illegible] 니……』

『뭐 칙숙의?』

신씨는 [illegible] 말을 가로채엿다.

『칙숙의가 가서계시다느냐』

『네 상감마마 분부으로 떠나시든날 첫히 나아오서서 제수(諸節)께 간청하여 [illegible]하엿다합니다. [illegible]도 가련하드라고 지금도 사람들의 어야이까리가되여잇다합니다』

『그래』

하고 신씨는 정신의 [illegible]러버리는것을 깨닷는다. 여태까지 한탁하고잇든 애정의 자기만족이 실로 허무한 [illegible] 어엇든듯 칙숙의에대한 [illegible]感)이 [illegible]이다. 그것은 경주하는자가 자기만어 무리를뒤어나 [illegible]리는줄 자신하고 잇든중 우연히 벌써 결승점에 들어간자가 잇는것을 알엇슬때 부끄럽고분하면서도 그 적에 대하여 일종의 통쾌감을 느끼는 그가튼 심리엿다.

그러나 이가튼 신씨의마음을 알까닭업는 양씨는 신씨의목여함이 될지 연산에게대한 근심이 와회됨이리라 혼자 작정하고

『얼마전에 갑작이 날이 추워젓다고 상감마마께오서 교동 대전마마에게 의복과 찬수(饌需)를 해보내시는데 그때 가저갓든 사람들의 말에도 칙숙께서는여간시실하시지안으시사 기분도잇치시고 소식소복으로 정성이도저하시다 하옵더이다』

하며한충더숙의칭송이자자하다

『참 칙숙의도 가상하옵지오』

대전마마께서 배소로 떠나실적에 누구나 생각하기를 아마끈전마마께서 뒤좃차가시리라 햇섯는데 의외에도 칙숙의가 그처럼 청하여 나서니 놀랍지 안켓습니까』

그리고는 그말이 신씨의감정에 거슬릿슬까하여

『뭐 끈전마마께서 따라 나서지안흔것도 우연은 아니시지죄송한 말슴이지만 반정한날에야 예귀례로 보아서라도 누가뚱궁마마며 대전마마며 그처럼 득전(得全)하실줄 알앗섯나』

하고 변명비슷이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황공하옵게도 대전마마까지전출하실때는 그러케 아섯는지형벌을 바들까 두려워하사 몸서 어려워 하섯나하지 안사옵니까 네 끈전마마』

신씨가 오래 말이업스므로 헤헤해 아첨하는 웃음을 지우며 동의를 구하는것을

『그럼 자넨 내가 그때 대전마마 수왕刀롯하엿든 목숨을 아까워해서 죽엄을 바랏까 두려워한까닭이신줄 알앗나』

어려케 말하는 폐비의 모양은 엄숙하엿다.

『웅 자넨 그러케 생각한단 말인가』

『네?』

『여보게 양내인 참 섭섭하고 억울하이』

『황송하옵니다』

『여보게 내가 대전마마를 따라나서지안흔 까닭은 참 저네도 몰르겟세. 내가 대전마마를 따라 배소까지 가지안은것은 목숨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대전마마에게 참한 정성이적숙의만 못해서도 아니고 그저 한가지 슬퍼던는 끄인때문이엿다네』

新刊紹介

▲第三回全朝鮮男女音樂콩쿨曲譜集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 定價一圓

▲『朝』八月號 發行所 京城府明倫町 朝鮮總督府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協會 振替京城一八二九一番 定價五十錢

▲稻葉博士還曆記念朝鮮史論叢(目次) 滿鮮關係史 [illegible] 滿洲に遺る朝鮮との交涉 李朝 [illegible] 時代の西北境界と鴨綠江(特に淸朝との關係を論ず) 朝鮮人の日本風俗觀 我國俘存の洒三朝實錄に就いて 朝鮮に於ける一夫多妻の存在期に就ての [illegible] 本誌 [illegible] 朝鮮半島の [illegible] 年代に就いて [illegible] 閣島派出所の事蹟概要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 稻葉博士還曆記念會 (非賣品)

▲野談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二八番 定價二十錢

가정과위생

늣더위가 심한 요새이지만
古木나무에 눈이쌔이듯한
여러분의신세
그모도가 부인병 때문입니다

뜨거운해빗이 내리쪼이는 요제에는 건강한분이라도 더위에 따러가는때임으로 부인병으로고통을밧고게신분에게는 더욱힘지 더위를 타게 되며 병세도 중하게되는시절임으로 어떠에병근을뿌리를 빼버리시사 주수의가을에는 쪽쾌의 매실을 엇게하여주십시요

◇

더구나 여러분이 깨닷고게시는모든 부인병의증세는 자궁속에서 병균이 활동하고잇는 때문에 그러고장을 일의키고잇스니 그곳에잇는 병균을 죽이고 전부파고 뚝이 흘녀나오는 『대하증』을 업새면 씨슨듯이 모든증세는 낫게됩니다

◇

그런데 이병회근을 업새시라고 먹는약을써서 치료하는분이게시나 이것은 어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잇는바와가티 조곰도 근치가되지안홈것입니다 즉 자궁속에 엇는 병균을 이라고 배속을거처서 오줌에 약한기운이섞겨나오거나 흐른 살속으로 통하야 그곳에 작용하기에는 너무나 굿세인병균이며 홍진이 엄청나게생겨잇스니 그엇지 그리힘으로 나올리가잇겟습니까! 다만 국한된증세를 일부분 진정식히는데 지나지못함으로 반드시권위잇는 專門病院에가서서 진찰을바드시든가 흑은 전국의帝大, 赤十字病院을위시로 유명한대병원서 매일수만은 부인병자를 구원하고잇는 『와세돈球』로 직접 병회근에 치료하시면 단시일안에 근치됩니다

◇

특히 주의하실점은 직접환부에 넛는약이면 먹는약보다 낫게지하고 보통민간에서 팔리고잇는거묘변나는냄새나는약좋유 약한개를 가지고 一週日이나 쓰는약가튼것으로 치료하실때에는 병세가 더욱 심하게되는수가만흐며 더구나 거문약물이 흘러나와속옷을 더럽게하거나 또는 자궁근처 벽처 다리까지 피부병을 일으키는수가만흐니반드시信用잇고약효가훌륭한 帝大病院서쓰는 『와세돈球』로 고처야합니다.

◇

와세돈球는 고혼 때리빗곳흔 빨강빨강한약으로 넛키에 조곰도 어상한기분혼주지안코 꼿닥으며 흘러나려서 속옷을더럽피는 법이업고 조호향기와함께병어낫습니다.

두렷한 살은實例

別別藥中의眞珠입니다
京城 孫寅子

(前略) 여름이되면 더욱심하야 허리가 아프고 말못할신고를겪는데가 날파가티姙娠의긔봉을엇지되니 무어라치사하오리까 一時는 內服藥, 坐藥, 丸藥할것업시 힘써 求해다먹엇스며 한참조섭도해스나 差度란 조곰도업섯습니다 영영낫지안는病이로구나 斷念햇슬때의술꿈에서 救해주신것이 엇던동모가자기체험파함께 권해준 『와세돈球』입니다

淋毒性內膜炎이나어 새로운夫婦愛
定平 朴順愛

이와가티 깃븜에넘처서 붓을들줄은 꿈에도생각지안엇습니다、그것을생각하면 感謝의눈물을 금할수업습니다 (中略) 男便은自己의 불찰을 갚기爲하야 나의淋毒性內膜炎이잇슴을 말하지아니하고 勿論醫師에게도 보이지못하게함으로 결국대하를에괴가석겨서나오게되고 熱이나며 局部를 中心으로 그부근이 심히 압퍼서 죽을지경이엇습니다 (中略) 內服藥과 坐藥을작고 권하기에 권하는대로 써보앗스나 아모효험도업고해서 친정으로도라갓습니다 바로 그날 偶然히놀너왓든 친한동무에게 『와세돈球』의 효험담을듯고 『와세돈球』를쓰기始作하엿습니다 (中略) 赤痢藥을쓰면 몸이편하여지고 氣分이조흥으로 連續하야使用하엿더니 압흠이경하여짐을따라 대하量이점점 적어지고 (中略) 男便도自己역 잘못을 後悔하며 安心하야 全快할날이멀지안흠으로 近日內로 시가로가기로결정하엿습니다 (後略)

處女대하증이 『와세돈球』의德分으로낫다
仁川 金龍女

전날보내주신 『녀성의신생리학』 파藥을六日分을 틀림업시 영수하엿사오며 그약을쓰기시작하지 일주일만에 증세는무사히 나엇스며 同時에 가려웁든것도 업서젓스며 더구나 그지절머리나는 『대하』도 나오지안으며기분조도회지고 제일공부에 회기가돌며 학교동무들까지 아조 딴사람가티되엿다고들합니다 동봉한謝狀의증세는 제동모의것인대 그동무는 昨年 여름부터 『帶下症』이나타낫다고하며 그동안 『거묘변긔』 나는약을쓰고잇섯스나 조곰도 效力이업든바 아니라도로혀심한 고통을 엇고 엿섯다합니다 그래요새에는 제가쓰는약을가지고쓰고잇사오니 速히 보내주심을 히망하옵나이다

와세돈球를使用하고잇는有名한病院의一部

東京帝大附屬病院
京都帝大附屬病院
九州帝大附屬病院
東北帝大附屬病院
日本赤十字社病院
救世軍病院
日本醫大附屬病院
大阪醫大附屬病院
岩手醫專附屬病院
長崎醫大附屬病院

가정에서 손쉽게 근치되는

와세돈球는 깨끗한 며리빗도흔약이어니 약한개를넛코주무시면조곰도 이상한감이업시 곳독아서 약기운이 병회근에 작용하고 몸속에 퍼저서 곳 근치됩니다

一와가는一 十二日分…一圓廿錢、廿四日分…二圓卅錢、卅六日分…三圓四十錢(病院用徳用正)百四十四球…十二圓이오며 통지하시는대로 조선국문으로 알기쉽게쓴 『부인의 신생리학』을어느분에게도 거저드리며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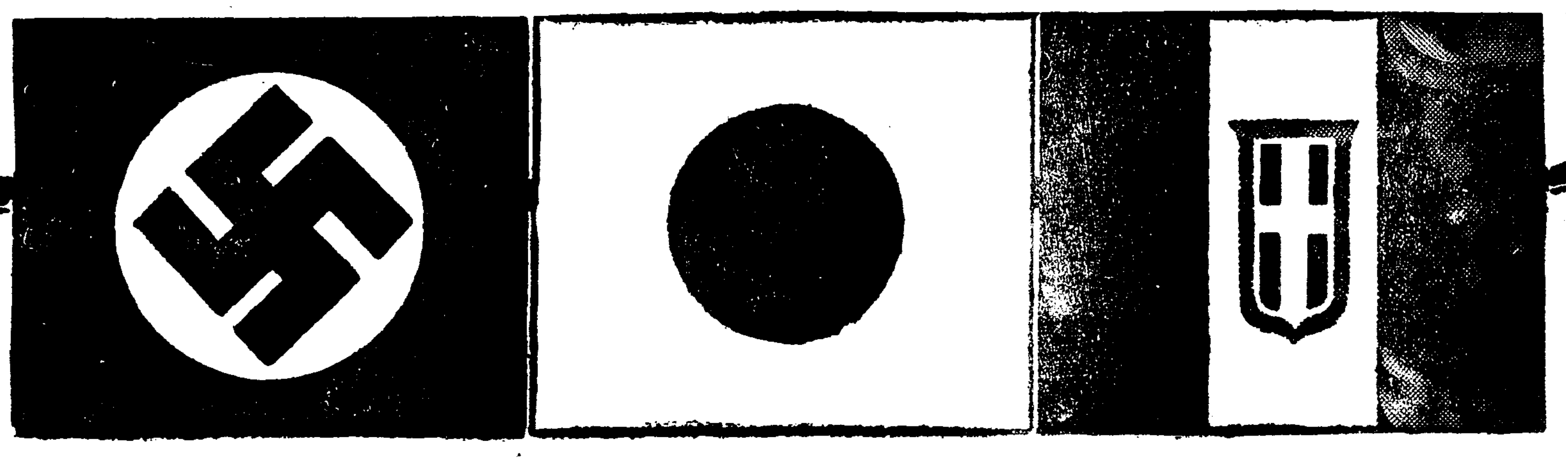
東京市芝區巴町十三ノ一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六〇一九番)

V-85

一家一冊！好評의 "少年" 九月號 全國發賣

첫가을선물 "少年" 九月號！朝鮮第一재미잇고有益한雜誌입니다！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定價十錢·振替京城五八七八番



昭和의 常識

[illegible]

只今은 全國民이 瞬間도 이저서는 아니되는

『防共』의 精神的強化와

『体育』의 徹底的鍛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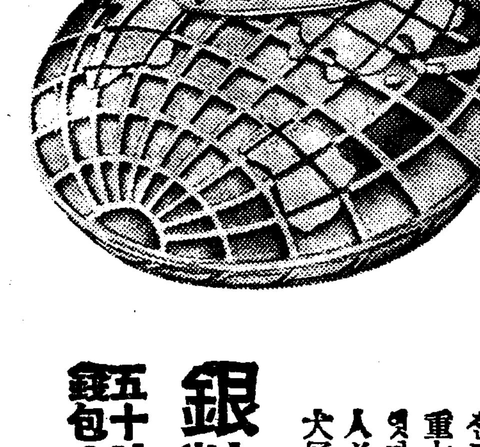
이 두가지 생각을 強하게 銘記하기 爲하야는 仁丹에서

今般、新発売하는 防共容器、体育容器

를 恒常携帶하야 仁丹의 活用과 아울너 이 非常時局을

이기어나가주시오

今夏의 消化와 解毒 銷夏에 防疫에 仁丹은 반드시 이容器로



防共容器

크로-ㅁ製、世界地圖의意匠으로서 산뜻하고高尙한中에 重大國策을銘記해서 잊지안토록하는日本人必携의時局容器로 大好評

銀粒仁丹 五十錢包에 添附

体育容器

"Mark"型、크로-ㅁ製 清新潑剌한 感覺中에、體育精神이 橫溢한、總動員下의 仁丹活用에 가장 相副한 新容器 (綠色、黃、靑、赤、紫의五種있음)

銀粒仁丹 五十錢包에 添附

沈落一路의 鰮工業
業者破産의 危機
江原道에서는 救濟對策으로
群小業의 統制를 計畫

【襄川】 수산업의 중심세력이되여잇는 정어리어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갓흥가하엿든 유비료제조업은 수산제조업의수위를 점령하고 그공장수가 강원도에만 무려구백여개소나되는데 근자에이르러는 전년도의풍어로인하야 다량으로제조한판게상 은유가 각경화공장「탕크」에충만되여잇고 사변관게로 해외수출이 불여의하여 시세도저락되여 매매작년에는 상당한활기를 띄엇든것이 현재의형세로는 전년에 비하여 떠러젓다 그리고 금년은 흉어에 연료유배급의원활치못하게되여 어업자들의 곤경에빠지게되여 고잇다고한다 여기에 금년의제조고를보면 전년의 절반도안되여 도산위기에빠진 업자도사실잇는 것이므로 특히구백여개의 군소공장의 약점을 구제하기위하야 도당국에서는 수개의군소업자들이 연합경영으로 죽으나사나 공동경영으로하야 명의군소업자가 대자본과대항하며 그수명이라도 유지할계획을수립코저 지도중이라는데 이와가튼 현상이지속된다면 파연어떠한결과가올는지 업계에서는 그주세를주목하고잇다고한다

大興小學校舍 工事不遠着手

【大田】 금년에새로이인가된 대전대흥소학교(大田大興小學校)는 이제야 설게가완료되여 불원간 공사입찰을 시행할예정이라는바 현재는 사학급으로 교사의협착과 운동장이업서 적지안흔고초를 바더오는 동교도명년신학기부터 훌륭한 새교사에서 교수할수잇스리라고한다

崇商도共學制
明年度부터實施를期必하고
關係者를具體案考究

【平南支社發】 평양공유게에 어재를발휘하고잇는 사립숭인상업학교(崇仁商業學校)에서는 이기찬(李基燦)씨교장취임이래 교운이 일층발전하고잇는데 명년도부터는 이것을내선공학으로할것을내정하고 그방침의구체책을 연구중이라고한다

天安玄台東氏 罹災民에同情

【天安】 참담한 평북의수해는 누구던지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할것이다 충남천안읍통(天安邑市場通)에서 상업을경영하고잇는 현태동(玄台東)씨는 원래자선심이 풍부하여 칭찬을바더오던중 이번에 평북수재의 말을듯고 이재동포에게 무엇으로던지 위문의성의를표하겟다생각하엿던지 일전에 본보천안지국기자가 그상점아페지나는중 현태동씨가 나스면서 잠간쉬여가시오하고 자기상점으로 안내하여드리고 씨는 정중한태도로하는말이 이번에 평북의 참담한수해는 귀지를통하여 잘알엇습니다 그러나 그리넉넉한사람은아니오나 그런참혹한재변을당한 동포에게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와 이제변변치못한 것이오나 그이재민에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하고 약품(藥品)칠십점을 기탁하엿다 이말을 드른 사람들은 씨가 솔선하야 이가티 동정함은 파연 씨가아니고 누가잇스랴하며 칭송이자자하고 이와가티 동정품을기탁하리가 뒤를이어속출하리라한다

統一體組織前提로 江界兩體育會解體 單一團體創設도成案

【江界】 강게에는 평북지원이중심이되여잇는 강게체육협회(江界體育協會)와 순조선인민간단체인 석주체육회(石州體育會)두체육단체가잇서왓다 그런데 이두단체는 사오년전부터 게체육회측에서는 합동운동을 이르키여 누차 석주체육회측에 절충을 하야왓스나 끗끗내 석주체육회측의반대로 그실현을보지못하엿든바 금번실시되는 당국의 통제방침에 순응하야 양단체는 모두해체하야 가지고 새로운단체를 창립하자는안이 성립되엿다 이에지난 이십칠일 석주체육회에서는 오후두시 강게상공회관(江界商務會館)에서 강게체육협회에서는 동네시 강게금융조합회의실(江界金融組合會議室)에서 각각임시총회를열고 축의해체를 선언하엿는데 새로나서는단체는 벌써부터 기초공작이 진행되는중이므로 팔월말이나 구월초순경에는 그창립을 보리라한다

殘金五百圓은 英實校에寄附

명칭=소화팔년사월 창립된이래 서북조선에잇서서 명실그존재를빗내며 사게를가리드시하던석주체육회(石州體育會)는대세에순응치안흘수업서 보록이 오년반의역사를남기고 지난이십칠일 해체되엿다 동단체로서는 마즈막회합인 임시총회는 오후두시부터 강게상무회관에서 회장김신현(金華鉉)씨사회하에 개회하고 해체의결의를지은다음 회게잔금및 잔무정리에대한 토의가잇섯는데 본회잔금사백팔십삼원십오전은 영실학교체육부에 기부키로하고 서북대회(西北大會)기타일체잔무에대한정리는 구회장、부회장、회게등여사람에게일임하고 폐회하엿다한다

造言流布타가 六個月의懲役

【淸津】 장고봉사건(張鼓峰事件)을 사이에두고 유언비어를 만드러 무책임하게도 방송하고다니든 무리가 이곳저곳에서 검거되야 엄벌을받고잇는 요지음 이번은 직접 현장에서 허튼수작을하든사람 세명이 각기청진지방법원웅기지청(淸津地方法院)에서 군기보호법 위반(軍機保護法違反)으로 체형을밧게되엿다
가、경흥군아오지동(慶興郡阿吾地洞) 김학순(金學孫)(二七) 과 강명흥(姜明興)(二八) 두사람은 경흥에 갓다오는길에 ○○부대의 거동을보앗다는것을 방

清川江의銀魚 鑛毒으로全滅

【平南支社發】 그자미는 양으로나그맛으로 청천강(淸川江)의은어(銀魚)는 조선제일의 칭이잇섯는데 금년에는 어찌된세음인지한놈도 자괴지를안허 어부들은물론 각요리업자들 식도락자(食道樂者)들까지들 우울하게하고잇다는바 이는강안일대에 금광이성하여 광독이 강물에 흘러든까닭이라 하다고한다

勤勞報國團作業

【別河】 강게군성간면(江界郡城干面)에서는 경제전강제주간행사의하나로 지난이십륙일정오를기하야 국민정신총동원연맹결성식을 거행하

一千餘棉作改良稧
振興會合流를反對
共同事業部設置獨自的活動을하겟다고
幹部慶南道에陳情

【慶南支社發】 경남도내에는 현재면작개량게(棉作改良稧)가 열천칠백여개소나 잇서서 면작증산급개량에 만흔활동을 하고잇는 생산자의 이익을위하야적저한 활동을하지못하므로 이것을유감으로생각한 각군면작개량게대표자들이중산급개량을도모하자가 소비를목도로 절약케하는동시 판매방면에잇서서도 종래의상대회사에 지정판매케하는 면게상가격에잇서서 퍽으나 불리한점등을 시정하야 모든방면에잇서 생산자의 이익을위하야 적극적활동을하고저 금년사월경에 그일천칠백여개의 면작개량게의 각군대표자가 협의한결과 경남면작개량게 공동사업부(慶南棉作改良稧共同事業部)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각면작개량게의동의를 구한결과 현재동의한계가 일천오백여개소를 돌파하야 그 일천오백여개소를 도내전면작 개량게를망라하다시피되여 오는십월초순경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개시하자에게 그래서 만일 그와가티 진흥회에합류된다면 면작개량게의 독자적 활동을하기어렵고따라생산자에게 불리하게될 정세이라고 그러케되면 검사원도 계게되엿는데 제인신청은 관장으로부터 전회에신청한 중검사로부터 각하한다고한후 판여 괴고 강석준에대하

社會、農振課認可 平南道機構改革實現

【平南支社發】 사회정책의 강화와 농업의 일층의진흥을 기하고저 평안남도에서는 예정기구(行政機構)를 개혁하여 사회과(社會課)와 농진과(農振課)를 신설한다함은 기보한바 잇거니와 이십구일 총독부로부터 인가가 잇섯스므로 목하 사무분담게정에 분망중이며 과장은 모두 주사(主事)급회파는 타도(他道)로부터 내입하게 되리라고한다

自動穀物定量機 金炳化氏가發明

【裡里】 이리읍일출정이리정미소(裡里邑日出町裡里精米所)의 경영주김병화(金炳化)씨는 자동정량곡물조입기(自動定量穀物調入機)를 발명하야 특허원(特許願)을제출하엿든바 칠백삼십삼번으로 접수되엿다한다 씨의 이기게발명에의하야 정미업자에게는 어대한소식을전하게되엿다한다

六百餘戶細民 税金을代納 延安張龍鎬氏美擧

【海州】 연안읍연성리(延安邑延城里)일백팔십삼번지 서용호(徐龍鎬)씨는 연안읍내 세민의 호별세(戶別稅)육백육십오명의분 일백오십팔원삼십오전을 대신납부하엿는데 씨의미거는 이번뿐만아니라 작년도급 재작년도에도 이천여명의세납을대신바치엇다한다

鐵道事務所事件 近日中에送局

【慶南支社發】 조선총독부부산철도개량사무소(朝鮮總督府釜山鐵道改良事務所)직원의 부정사건은 로 일시사회의주목을끌든 동사건은 동소서구과용지매수게주임 중천형(同所庶務課用地買收係主任)과 동게원인 남상(南相)의검거로 그부정사건의전모가 나타낫다고하는데 전기검거된두명외에 동소원십이명이 결탁하여가지고 금년유월부터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경주역(慶州驛)구간의 철도용지매수에관해서 자기의 관직을 이용하야 약사천여원의 공금을 횡령하야 부내 남빈정(府內南濱町)요리점에서 호유 소비하고 도 거이잇섯스므로 근일중 일건서류와가티 송국하리라고한다

賭博者에罰金刑 大邱法院에서求刑

【慶北支社發】 현직경부의 도박사건으로 일반의 흥미를 끌고 공판이개정되엿든 전김천경찰서(金泉警察署)전사법계주임 경부(警部)에 중화하엿다든 정천이경의원(鄭泉院)장 강석준(姜錫俊)(三三)에대한 공판은 정경부사건의 공판이 지난이십구일에 속행되기로 되엿든바 사실심리가잇섯다고 변호사로부터 이를 보하하고 어심오일에 재판장은 이를 기각하얏다 전회공판정에서 피고강석준이가 진술한것은 기보한바와가티 검사정의 공소를 전면부인하엿다 그내용이라는 검사정에서는 경경부에 사례로서금 일천원의 제공을하엿다고하엿스나 공판정에서는 전기일천원은 정검사원의 중여가 사실전기한 일천원은 사례로서 기부이나 로 정경부에 대하야 축전 비지불 그 후에공판은 비싼한 주지하에 지난 이십구일 오전에 사실심리에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제삼호 법정에서 주전(舟田)재판장 대저(大

案內人强盜로豹變 金品을强奪逃走 犯人은翌日에逮捕

【德川】 지난이십팔일 오전두시경 성천군 대구면 광산리(成川郡大邱面鑛山里)모여인숙에서 곤롱으로 강도라하여 나타낫는데 피해자는 머리에 중상을 당하고 현금오백원 삼십일원십오전 서기한개 가방한개를 빼앗어가지고 도망하엿다 범인은 동군성천면(成川面)거주 박태언(朴泰彦)(二八)로 피해자는 평남도내에 사는 상인 손이들과 가티 안내를 하여주겟다고 싀의에 서(?)... 가해자 박태언(朴泰彦)(二八)은 암야 계되엿는데 박의말이 이지방은 목재가 비차서 못살러이니 장룡면(龍龍面)지방에가서 자게사 주다고하므로 손씨는 그말을밋고 지긋고 동반하고가서 모여인숙에서 동숙하던중 밤중에 바른 가만히 일어나 몽치로 손씨의 머리를패고 현금오백원 삼십일원십오전 시계한개 가방한개를 가지고 도주햇다 범인은 보적을 순천군 신창면(順川郡新倉面)에 두고 현재는 양덕와서 머무는중을 한다여한다

照明彈

평남도경찰부에서는 경찰관의전직을 막기위하야 오년이상무한호가아니면 퇴직을 못하도록하라고 관하각서장에 명령하엿다고

◇

여러 비상시경찰관의 업무가 크다고하여도 먹고야할일이니 생활조건이 나흔곳이잇다면 전직하고싶을것은 인정의당연

◇

경찰관은 민중과제일접촉이 만흔만큼 좀더우대하여 그들의생활을안정시키는동시에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할것이 아닐까?

慶南道全幅에亘해
千金生命雨沛然
自此旱魃은完全解消

【慶南支社發】 경남도내의 각농작물은 지난번의 비로서일부천수답은 제외한대부분이 다소소생하게되엿다할은 기보한바인데 그후농민이계속되어 다시한발을맛보게될우기에 직면되여잇든바 다행이 지난이십팔일오후세시부터 도내전반에 공하야비가오기시작하더니 이십구일오후두시경까지에 부산지방은 구십삼미리에달하고 도합천(陝川)지방은 고하며 기타지방도 대개오십미리에서 구십미리 내외의우량이 잇서서 염려되던한발은 어제와천히 해소되엿다고한다 그리고도 내각지에 우량은 이십구일오후두시 현재다음과갓다
釜山 九三미리 馬山九五미리 蔚山 七○미리 梁山 九○미리 密陽八○미리 晉州八五미리 居昌七五미리 山淸一○○미리 咸安五○미리 咸陽 八三미리 河東一○○미리 陝川一三○미리 宜寧七八미리 固城七八미리

慶北一帶도均霑
農形은豐作豫想

【慶北支社發】 오래동안 한발로 말미아마 소동을 이르키고잇든 경북도내 일대에도 지난이십구일조부터 일제천금의 강우가 내리기시작하야 우량은 오전열시경까지지에 이십이미리에 달하였고 며고 의연히명 강우가계속되여 이대로 일일까지만 계속된다면 도내농작물은 소생할것으로 약삼사할의 감수가 예측되엿스나 금번 비로인하야 약이할의소생이 예측되며 따라서 도내일원이 풍작이되리라고한다

自轉車탄怪漢 現金强奪逃走

【淸州】 청주군사건 사천리 신천리(新川里)거주 서청수(徐淸洙)(二七)은 일작 이십칠일오후열시경 청주읍에서 사천리 수곡(水谷)으로 향하여 가든중 어떤 소년이 지난이십칠일오후열시경 미리에 가티 나라나서 전기의손씨의 하는것을 강탈도주하엿다 원인 이등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데 자전거로 범인은 나리게되엿다는데 현금사원을 빼앗아 도망한 사전에 인멸되고잇다

年產千萬圓突破
刮目할江原道林産副業

【春川】 강원도(江原道)의 임업부산업(林業副業)은 상당히 중요한지위를점령하고잇는 임산부업의 생산량은 아래와가티 해마다 증가되고잇서 작년도에는 드되여 일천만원을 돌파하엿다 세목별로 보면 곡물대용의 송이와 축목이와 버섯 수요자(需要者)가 만흔데 그중에도 화전(火田)지대의 원료인 목재로 원파 및 숫가마를 거두하야 양한 연구성적이 조흔 가산(家産)을 하고잇다 지난해의 생산고는 다음과가튼바 산업지도가 상당한결과를 하면 다욱다잇스리라고한다
▲木炭 一○、二○九、一四二六貫 一、四一三、○○○圓
▲新炭 一四、五九八、○○○貫 一、六九四、四三○圓
▲木材 四、四二八、三五○貫 七○一、六六九圓
▲其他 三四、五八五、六四○貫 一、○八九、○七四圓

結……實 ——(安東縣郊外所見)

化粧 理髮 器具 鏡台
東亞理髮器具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室町二丁目 電話日本橋二四一四五八八

強性強精藥
男子性器短小(發育不全)早漏에百發百中!
中國名藥淸導補腎丸男子性器發育不全한분은...

早漏防止
淸導補腎丸 十圓 六十日分
金剛藥房 京城一ビ一洋行

남녀 림질 쇠약
洋藥漢藥等百藥이無効한分과자조再發되야根治안되는분은...
淋疾? 氣質과水氣나陽氣不足과보이는경병

サッタリン
マラリヤ에對한キニーネ와가티特效
20錠 50錠
新興製藥所 京城 堅志町 SHINKO

印材製造 附屬品一式
印材卸
京城府黃金町四丁目二八
須川印材工場

音樂教授
피아노、바이올린、聲樂、其他
京城府明治町二丁目...
主宰 金相讚 沈相溶

募集
本社京城本社及外各支局에서...
朝報案內

女性
九月號 定價二十錢(送料二錢)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5878

女性書簡集 (書簡) 紫雲英
깨끗이 고쳐지리고 (縫裁) 裵祥明
九月의食卓 (料理) 趙慈鎬
젊은어머니讀本 (育兒) 李達男

非常時局과代用品
安東爀

結婚의危機
李相昊

野談 손톱 업는 玉手 申鼎言
小說 강아지 韓雪野
小說 惡魔 張德祚
連載小說 世紀의花紋 金南天

詩와鑑賞 鄭芝溶
스승에게바든말씀
□하늘가티노프라……李鍾昇
□우룽을버엿고나……鄭芝洛
□세가지말씀……李甲洙
□獨自ㅣ한마디……金文柱
□마지막말씀에……李源朝
□제자와스승……宋錫夏

詩와隨筆
○가무래기……白石
○비……白菊喜
○愛戀頌……李燦
○萬平野……蔡萬植
○가츠리島……李石薰
○芍藥花……洪性翰

女性과母性愛 許永淳

崔奎南氏家庭風景 (探訪記)

시방생각해도부끄러운이야기
○이럴때가또잇슬니까……白信愛
○다시보니아주딴사람……孫貞順
○업혀가는二十處女……朱壽元
○곳안나는조상치르고……張文卿
○생전처음한나의獨唱……金壽任
○校長에게쓰러지고서……宋今璇

○敬愛하는金元福……鄭勳謨
○幸運兒鄭勳謨……金元福
○清風가튼李善熙……張德祚
○엄마文士張德祚……李善熙

내동무公開狀

달밤에울고간女子 金永壽
漫文 鍾路夜話 趙豐衍
映畫 第九交響樂 朱世坤

原稿바르게쓰는법
★코스머스 (童話) 鄭芝溶
★黃昏江頭 (新詩) 金東九
★새떼 (新詩)
★川邊小曲 (新詩) 朴
★清流 (新詩)
★언덕위 (新詩) 金
★萬里鏡 (新詩) 李

朝鮮家族生活制度의檢討
咸尙勳

編輯室
★女性界消息 ★母性手帖
★主婦手帖 ★編輯後記
(讀者作品募集規定)

903722

●民需制限物資解剖●

水銀

辰砂를 焙燒하면 水銀이 遊離되고 蒸溜하야(沸點三五七度) 液體로 맷는다。原鑛으로서는 伊太利、西班牙、合衆國、支那(湖南省辰州로부터 貴州에 亘하야) 等이 大部分을 占하고 잇다。我國의 生産及 輸入狀態를 보면(單位瓩)

	輸入	內地生産高
昭和九年	四九八	六
十年		五
十一年	五一二	一五

(此外朝鮮一四〇瓩)

으로 內地生産高는 거의 同量가 안되고 朝鮮을 合하야 겨우 全需要의 二三%程度를 供給하고 잇는 狀態이다。

×

內地에서는 宮崎縣、奈良縣等에 天然水銀이 잇서서 大和水銀鑛業會社가 內地産의 大部分을 生産하고 잇섯다。그런데 昭和十年에 北海道天鹽에 日鑛을 背景으로하는 東洋水銀鑛業株式會社가 생기여 年産十一瓲을 達成하고 다시 年産二百瓲을 目標로 增産에 努力하고 잇다하니 그 前途는 期待된다。

西班牙의 內亂으로 生産이 激減되여 世界的水銀飢饉이 생기여 價格도 昂騰되데다가 支那로부터의 輸入도 杜絶되고 또 戰爭으로 水銀需要가 激增되어 日本의 水銀價格은 昨年十月中旬에 百斤 五百十五圓으로 昨年夏에 比하야 百四十圓의 昂騰을 보이엿다。이에 商工省에서는 重要物資在庫數量調査規則에 依하야 主要府縣의 水銀販賣業者로하여금 每月의 取引狀況을 報告하게하고 市價抑制에 努力하엿스며 다시 今年四月一日 水銀에 最高價格을 決定하는 同時에 水銀優先販賣順位를 決定하야 配給시키기로 하엿다。

이 水銀優先順位表에 依하면 軍需를 優先第一로 하고 民需는 第二順位로 하엿는데 左의 것은 此에 優先하게 되엿다。

一、金精鍊用
一、曹達電解用
一、爆藥用(雷汞)
一、藥用品＝局方水銀、昇汞、甘汞(鹽化第一銀＝下劑)蒸氣製甘汞、赤色「요-드」汞、黃色「요-드」汞、「오레인」酸水銀、黃降汞、赤降汞、白降汞、「살리칠」酸水銀、朱(赤色酸化汞)
一、電氣器具用＝水銀整流器、水銀燈、乾電池
一、計器用＝精溫計、晴雨計
一、船底塗料用

右記한 것이 大槪 水銀의 用途인데 그의 使用比率을 보면 如左하다。

一、金精錬用 一、曹達電解用 } 二〇%
一、藥用品 二〇%
一、爆藥用 五〇%
一、計器用 一、船底塗料用 其他 } 二〇%

이中注意할것은 爆藥用의 需要이다。이것은 平時에는 水銀消費의 二割程度이나 戰時에는 三割以上으로 增加되는것으로 前述한 雷化銀파가리 起爆藥이다。水銀을 濃硝酸에 溶하야 이에 『알콜』을 加하면 대단히 激한反應이 생기여 冷却後白色針狀結晶이 남는데 이것을 起爆藥으로 쓴다。

닛켈

『닛켈』은 周知하는바와 가티 貨幣 또는 鍍金材料로서 直接 使用되는同時에 銅、亞鉛、鐵鋼等과의 合金材로서 重要視된다。그러고 그用途는 各種日用品、建築資材、各種工業用其他廣汎하며 特히 軍需資材로서의 重要性에 對하야는 呶呶할 必要도 업는것이다。

그런데 我國의 『닛켈』自給力은 極히 薄弱하다。『닛켈』鑛은 從來는 [illegible] 少量을(年年百瓩程度) 生産하고 大部分은 輸入하고잇섯다。

그의 輸入狀態를 보면

昭和九年	三、六六六千瓩
〃 十年	[illegible]
〃 十一年	[illegible]

이며 이와가튼 大量을 輸入하고 잇는것인데 國際情勢가 언제 惡化될는지 모르는 이때에 國防上의 重要資材를 大量輸入하고 잇는것은 危險하다。그런데 左表에 보는바와가티 全世界의 産出量(加奈陀가 全體의八、九割을 占함)도 決코 豐富하지못한데다가 國際危機에 直面하야 各國이 重要에 熱中하고잇스므로 『닛켈』의 世界的需給은 逼迫하는 傾向에 잇다。現在 昭和十一年度의 我國의 輸入量이 前年度에 比하야 相當히 減少되고잇는것은 그의 反映이라고할수잇겟다。需要의 減退等은 생각지도 못할 情勢에 잇는 까닭이다。

▲『닛켈』의 世界産出高(單位千瓩)

	一九三三年	三五年	三六年
加奈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카레도니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希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諾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여기서 問題가되는것은 自給策如何이다。現在旣存의 事業會社로서는 昨年下期부터 日本『닛켈』一社가 操業을 開始하야 現下의 能力은 年産一萬五千瓲을 目標로 하고 잇는데 다시 年內에 一萬瓩의 能力을 擴張하기로 되엿다。그러나 『닛켈』品位는 極히 低率하여 (〇、三乃至〇、四%程度) 加奈陀鑛(四%)과는 比較가되지 안흐므로 이것을 如何히 採算化하야 難關을 突破할는지 當社의 努力이 必要한 點이다。

이外에 最近操業을 開始한것에 日本曹達(日産二瓲餘)이 잇고 目下操業準備中의것에 昭和鑛業、古河鑛業、日本鑛業等이 잇다。

×

使用量을 그自給量은 一部分에 不過하므로 大部分을 輸入에 依하지 아니치못하고 同時에 再利用 等에서 節約하여야 하겟다。自給이라고할수는 업스나 此際에 모든 本格的으로 自給을 開始하게되면 相當한 供給力을 確保하게될것이다。그러나 當面問題로서는 大體 重要用을 優先的으로 確保하게 될것이다 最大限의 努力에 依하야 極力民需用을 制限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에서는 昭和七年에 定하여온 『닛켈』의 利用이다 補助貨幣의 形式으로 鑄造하여온 『닛켈』貨를 廢止하고 『닛켈』로 改正하엿는데 다시 本年六月에 『아루미』와 銅의 合金貨를 採用하야 『닛켈』回收에 努力하고잇는 것은 周知하는바어니와 分明히는 말할수업스나 相當한 量에 達하고잇슬것이다。

投機賣買全無나 不動産價格强調

耕地、市街地投資賣買로

不動産은 市街地나 耕地나 모두 다한다 投機的賣買는 絕無하나 耕地는 米價高에 依한 採算買가 地主로 나와서 取引이 小口이나마 恒常잇는모양이며 市街地도 京城파가튼곳은 將來의 膨脹을 豫想하는 買物이 相當하야 大口賣買도잇는모양이다 一方不動産金融은 조금식이나마 金融機關의 遊資가 만흔關係上 融資되는때문에 土地價格의 下落은 보이지안코 地主方面도 投出치안어서 不動産市勢는 頑强을 繼續코잇다

航空機製造事業法實施

第七十三議會에서 議決된 航空機製造事業法의 實施에 對하야 關係當局間에서 着着準備를 進行하고잇는바 內地에서는 三十日부터 同法을 實施하기로 閣議決定을보앗스므로 朝鮮에서도 此同法은 航空國策에 順應하야 同日附로서 同法의 一部及施行勅令及施行規則을 施行하기로되엿다 同法은 航空工業의 保護助長을 圖謀하고 航空機材의 規格을 統制하야 優秀低廉한 航空機의 大量生産을 便히하야서 我國航空機工業의 發達과 國防第一陣의 强化를 圖謀하려는것으로 航空工業에 關한 我國最初의 法令으로서 其成果가 期待되고잇다한다

朝鮮米運賃 九月부터 元拂

昨夏의 朝鮮穀物協會對阪神朝鮮米輸送協會의 運賃契約에 잇서서 朝鮮米運賃은 九月부터 翌年二月까지는 着拂로 三月부터 翌年八月까지는 元拂로 決定하엿는데 이에 基하야 明後九月一日부터 運賃은 元拂로 하게로 決定하고 此旨를 朝鮮米輸送協會에서 各港穀物協會에 通牒을 發하엿다한다

朝鮮石油增資認可

朝鮮石油에서는 七月五日의 臨時總會에서 一千萬圓增資의 決議에 基하야 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이든바 大藏省으로부터 二十九日 承認한다는 入電이잇서 近近總督府로부터 正式認可가잇슬모양인데 增資額一千萬圓中 第一回拂込三百五十萬圓은 十一月一日 徵收하고 八月三十日 現在의 株主에 對하야 舊株一株에對하야 新株一株를 配定하기로되엿다한다

胚芽米奬勵에 農林省不贊成

白米食禁止는 絕對로不可! 農民生活을 脅威한다고

【東京】國民保健의 根本問題인 厚生省의 胚芽米奬勵運動은 全國主要都市의 知識階級層에 共鳴을 어더 鹿兒島縣 大阪府에서는 이미 白米食廢止를 決議하고 東京府에서도 廿五日 白米商을 集合하야 白米廢止를 協議한터로 이運動은 全國的으로 都市에서 農村으로 擴大되고잇는 狀態이나 米穀取締의 本고장인 農林省에서는 『胚芽米의 本質을 參考하지안코 急激한 白米廢止 胚芽米奬勵를 하는것은 國家的見地에서 贊成할수업다』 하야 厚生省을 狼狽시키고 잇다。卽農林省米穀局의 見解에 依하면 胚芽米奬勵는 國民保健의 立場에서 하고잇는것이니 反對할것이 못되는도도하나 이運動을 强制的으로 進行시키는때에는 重大한 社會問題를 惹起할 憂慮가잇다。日本各地의 米는 種類가 만흠으로 어떤地方의米는 胚芽米로할수잇스나 어떤地方의米는 品質上으로 不適하다。따라서 適地의米는 不當한價格昂騰을 하게되어 實際로 米作에 當하고잇는 農民의 生活을 脅威하게 되므로 監督官廳으로서 默過할수업다 또 國民의 누구나 먹고잇는 白米를 胚芽米로 곳치는 것도 不贊成이다 이것은 國民의 嗜好의 問題이니 만큼 白米食을 禁止하는것가튼일은 絕對로 不可하다 하는 것이다

農省米六萬石 內地移送

來六日輸送入札

農林省에서는 今春에買上朝鮮米의 內地移送을하엿는데 다시第二回買上朝鮮米의 內地移送을하기로決定하엿다 移送米는 昭和八年度産米一萬五千俵(六萬石)으로 群山으로부터 阪神東京에向하야 移送하는것인데 來月六日 그海上輸送契約에 各船會社의入札에 附하기로되엿다

洋灰操短率

二割四分으로決定

一割의大幅緩和!

朝鮮의 今年九月乃至十一月의 『세멘트』生産制限率은 今次北朝鮮의 水害對策等도 充分考慮하야 同期의需用을 三十萬噸으로 想定하고 [illegible]二十四%卽 [illegible]로決定하엿는데 水害復舊工事의 進捗에따라 今後의需要激增等 需給關係의 變動에對하야는 特히 愼重한 檢討를加하야 同期間中의 需給圓滑을 圖謀하기로 되엿다한다

兩大貯水池滿水로 七年間操業可能

長、赴兩水電六百萬圓被害補充

過般의 北朝鮮水禍에 依하야 朝窒日窒系諸事業은 被害地帶下에 集結되어잇는만큼 長津江水電、新興鐵道를筆頭로 그被害가 總計六百萬圓을 不下할것으로 보이는데 어一面 同系統의 長津江水電과 赴戰江水電의 貯水池는 滿水狀態로되어 今番의貯水增加量은 長津江十六億七千萬噸 赴戰江八億噸으로 計二十四億六千萬噸을算하는 狀況이다 赴戰江水電貯水와가튼것은 滿水不能이라까지 보이든것인데 兩貯水池의 滿水로 兩水電은 全能力으로約七年間操業이可能한 水量이라한다 從하야 日窒系로서보면 以上의 膨大한直接被害에도 不拘코 右水量에 依하야 補償하고도남는狀況이라한다

長津江水電 復舊工事進捗

長津江水電은 過般의 北朝鮮[illegible]

朝鮮重工業 乾船渠建設

釜山의 朝鮮重工業會社에서는 第一期計畫인 乾船渠의建設을 今後三個年豫定으로 實施하기로하고 總工事費金 九十萬圓으로서 九月初에 着工하기로되엿는데 이九十萬圓中 六十萬圓은 國庫補助이리라한다

日郵漢堡線鐵航

日本郵船의 漢堡線은 前月(七月)의 延江丸의 缺航에어여 八月의 第五船松本丸도 不得已한事情으로 缺航하게되어 釜山에서 倫敦『쁘레-멘』向黑鉛百十噸은 釜山에 停滯되고 잇는狀態인데 次回(九月)의釜山寄港船은 水戶丸(一〇、四〇〇噸)이라한다

簡保契約槪況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八月二十日現在 契約數는 內地人 三十六萬八千二百件、朝鮮人 百十九萬九千六百件 合計 百五十六萬七千八百件으로 其保險金額은 二億九千六十九萬圓이다。一件平均保險金額은 內地人側 一百十八圓九十八錢、朝鮮人側 百七十五圓十一錢이오 人口千人當 契約件數는 內地人側 五百八十四件九 朝鮮人側 五十五件三이다

郵便振替貯金으로 特殊銀行債券取扱

貯蓄奬勵의 見地에서 貯蓄債券其他特殊銀行이 發行하는 債券의 賣出及 元利金支拂을 簡易化하기爲하야 總督府에서는 郵便局所에서도 그取扱을하게하고 三十日付府令으로서 郵便振替貯金에 依한 債券賣出及元利金特別取扱規則을 公布施行하엿다 이에依하야 貯蓄債券其他의 債券等도 郵便所窓口에서 買付할수잇게되고 元利金의 支拂을 밧을수도잇게되엿다한다

輸入稅免除 府令公布!

總督府에서는 人造石油製造事業法또는 航空機製造事業法의規定에依하야 事業用品의 輸入稅免除에關하야 三十日附府令으로서 重要物資製造事業用品의 輸入免除에關한 件을公布하엿다고

事變國債賣行

어대 八割消化

遞信局管內의 二十九日現在의 國債賣渡高는 四十三萬四千五百五十圓으로 配付額에對한 比率은 七割一分四厘이오 豫約의것이 四萬一千六百八十圓이어서 豫約을加算하면 約八割에當한다

大阪三品後休

大阪三品淸算市場(綿絲、棉花、人絹)及大阪砂糖淸算市場은 當限受渡準備次로後場休會하엿다

楊平秋蠶種配付

【楊平】今年度秋蠶은 春蠶에 보다 比較的好轉이므로 楊平郡農會에서는 一般蠶農家에게 增加飼育을 一層徹底히하기爲하야 掃立三千五百枚를 數日前에 郡內各面에配付하엿다한다

經濟界消息

○中央肥料統制組合役員決定＝朝鮮中央肥料統制組合에서는 旣報와가티 二十九日午後二時부터 朝鮮聯合會議室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一、組合規約의承認
一、組合役員의選任
一、配給統制事務協議

를 協議한바 異議업시 可決하엿다 組合役員으로서 左의七氏를 參事에 選任하엿는데

矢鍋 淸水(窒素販賣) 橫山(滿洲) 神木(三井) 藤澤(三菱) 藤井(住友) 小栗(片倉) 常務參事로서 矢鍋氏가 推薦되고 窒素販賣에서 事務를 보게되엿다고

○鮮滿兩鴨綠江水電重役會＝鮮滿兩鴨綠江水電에서는 三十一日 新京에서 重役會를 열고 九月一日 拂込徵收의 一千二百五十萬圓(兩社各二回拂込)及今後의 事業計畫에 對하야 協議할터인데 野口社長 久保田專務는 三十日飛行機로 新京에向하엿다고

○京商聯議事＝京城商議聯盟에서는 三十日午後四時부터 同會事務所에서 常任役員會를 開催하고 左의議案을 附議하엿다고

一、支那事變國債購入의件
一、仁川商物及拔荷取締視察의件
一、商品見本市開催의件
一、支那語講習會開催의件
一、公定物價認識講演會의件

株式 上放된채 穩健

今日의 市勢 (三十日)

前場穩健 昨日暴騰에뒤어 今朝는 漢口完全孤立狀態를 傳하야 어어好感하고 紐育株式의 一時的反落에도 不拘하고 强氣가 買進하야 東新五高인 一百四十七圓九로 鐘紡六高인 一百二十六圓九로 寄付後 高値警戒로 [illegible]

後場閑散 前場引値後後場은 東新百四十六圓六 鐘紡百二十六圓二 [illegible]

一戰이끗나고 昨日의 昂騰으로 第二次戰으로 돌어왓다고 볼수가 잇겟다。그런데 第一次戰에 잇서서는 主力株는 上海後採合을 『카바ー』한것이 雜株(資源株)의 活況이엿다。그것은 支那의 長期抗戰에 對應하야 日本도 長期建設을하여야 하겟다는것을 認識한 市場이 資源株의 物色買를 한것이어다 다음에는 電力株와 船舶株가 活氣를띠고잇섯는데 此等의 雜株活況은 今般의 第二次戰에 잇서서도 繼續되고잇다 이곳에 市場人의 時局認識의 相違를 볼수잇겟다 今朝는 東新七圓三 鐘紡六圓 九合 好勢密付이엿스나 高價에는 利喰이 急하야 穩健狀이다 漢口攻略 一本을 目標로 上進하는 市勢이니만큼 漢口攻略이 何日頃에 完成될는지는 모르나 買方도 至今부터 自重한 態度를 取하는것보다 性急히 買煽하는것은 모양이것은 이市勢의 壽命을 短縮케하는것이라하겟다

市勢壽命長久?

漢口攻略을 目標로한 第一次 [illegible]

統制調整期待

軟派의見解는 今般의 騰勢까지도 다지 『民』에서 나지못한다고 보아 『이戰時에 이統制經濟時代에 株價가 노골하여 잇다』 하야 依然統制經濟의 發展을 警戒하고잇다 그러데 統制經濟의 一層進展은 不可避라할지라도 各産業部門의 相剋調整 各企業의 特殊維持에는 萬全을 期하여야 할것은 勿論이다 그러치아흐면 民間企業家의 創意를 阻害시키고 相剋이 激化되어 産業의 萎縮을 招來할 危險이잇슬것이다 그러므로 統制의 一層發展은 不可避라할지라도 統制方法技術等에 잇서서 是正할여지가업도록 努力할것을 期待하고잇는 모양이다

國債强調 【東京電話同盟】

格別한 刺戟材料가 업스나 株式의 堅調好調로 投資人氣가 良好하고 二回四分及佛貨는 五錢高를 繼續되고 米貨는 無賣買이엿다

甲號五分 一〇三、〇四五 二十三年物 九八、七〇 十九年物 一〇三、〇〇 佛貨四分 一九八、三五

米期 一圓臺로 割下

前場奎割 今朝阪地는 小笠原島附近의 颱風이 北上한다는說에 實需蠢動하야 先限 [illegible] 一丁低、中限은 [illegible] 一丁高로 寄付後 [illegible] 마츰내 三圓臺를 割하야 一圓九十九錢에 떠려지고나서 七節九十四錢 八、九節 九十一錢에 觸落되다가 九十二錢에 止하엿다

後場少戾

後場은 八丁高인 三十三圓四丁에 始發後 [illegible] 三番同價인 十二圓九十八錢에 五節九十九錢에 細理엿다

颱風으로波瀾

昨後場의 形勢로보아서 各地共히 又復一落을 豫想하는 市勢는 今朝小笠原島와 八丈島사이에 颱風이 發生하야 北上한다는 天氣表에 依하야 阪地市勢는 一歸反騰을示하엿다 當地도 中先共히 [illegible] 果然此颱風이 어떠한結果를 招來할지 一般은 深甚한注意를 加하고잇는데 天氣槪況에 依하면 左記와 如하다

朝鮮江陵沖에 少低氣壓이 잇서 不連續線이 東海岸에 贔치어 九州、四國의 西海岸에는 降雨가잇스나 朝鮮은 [illegible]

當限一代記

今前場으로써 最終幕을 告한 當限一代의 戰跡을 回顧하면 [illegible]

正米 嫌氣賣로 奔落

京城暴落

[illegible]

仁川奔落

[illegible]

釜山暴落

[illegible]

大邱不變

[illegible]

群山奔落

[illegible]

木浦不變

明後日로 앞둔 [illegible]

仁川當限受渡高

[illegible]

各地當限受渡高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今日財界 三十日

[illegible]

海外經濟 (三十日)

[illegible]

銀行券 (二十九日)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京城物價 (三十日)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大阪短期·東京現株·東京短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大阪長期·大阪期米·群山期米·釜山期米·木浦期米·東京期米·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 棉花 · 人絹 · 生糸 · 砂糖

[illegible]

益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一九六五 二一二三